

인문학적 성서읽기 (2)
로마서

법과 자유

머리글

짧은 저의 생각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법을 넘어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곧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의한 그 자유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 텍스트와 복음의 지평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상품처럼, 로또 복권처럼 포장하고 다루는 기술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교리문답이 아니라 훨씬 심층적인 생명의 세계로 돌입하는 인식론적 혁명이라는 사실을, 더 나가서 그런 인식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신앙과 사유와 말과 몸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말이 따로 놀고, 말과 몸이 따로 늙습니다. 하나님, 세계, 사람에 대한 나의 공부에 여전히 미숙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이 책에도 그런 미숙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부끄럽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가능한 빨리 줄이고, 속히 깊은 영적인 세계와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냅니다.

이 책에는 대구성서아카데미의 <인문학적 성서읽기> 모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 3월11일부터 2004년 4월27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여 로마서를 읽고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때 함께 공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대구성서 아카데미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차 례

1. 은총과 평화 (1:1-7)	
2. 복음과 하나님의 의 (1:8-17)	
3. 자연계시에 대해 (1:18-32)	
4.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2:1-16)	
5. 율법 선생에게 (2:17-29)	
6. 율법과 죄 인식 (3:1-20)	
7. 새로운 의 (3:21-31)	
8. 행위로부터의 해방 (4:1-12)	
9. 부활, 새로운 생명 (4:13-25)	
10. 하나님과의 평화 (5:1-11)	
11. 아담과 그리스도 (5:12-21)	
12.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세례 (6:1-1.....	
13. 죽음과 영생 (6:15-23)	
14. 법을 넘어서 (7:1-25)	
15. 생명과 평화 (8:1-17)	
16. 영광의 의미 (8:18-30)	
17. 절대 능력 (8:31-39)	
18. 사도 바울의 조국 (9:1-5)	
19. 선택과 유기의 변증법 (9:6-23)	
20.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10:1-4)	
21. 구원의 보편성 (10:5-21)	
22. 역사의 신비와 찬양 (11:1-35)	
23. 몸으로 드리는 예배 (12:1-8)	
24. 악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 (12:9-21).....	
25. 정치와 신앙 (13:1-7)	
26. 종말론적 윤리 (13:8-14)	
27. 채식주의에 대해 (14:1-12)	
28. 기독교인의 자유와 복종 (14:13-23)	
29. 종말론적 희망 (15:1-13)	
30. 사도의 정체성 (15:14-21)	

31. 구제금에 얽힌 사연 (15:22-33)
32.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16:1-27)

<부록: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 7편

1. 법을 넘어서 (3:21-31)
2. 죄로부터의 해방 (6:1-11)
3. 총체적 구원의 길 (8:1-11)
4. 희망의 눈 (8:18-25)
5. 바울의 역사인식 (9:1-5)
6. 카리스마 공동체 (12:1-8)
7. 최후심판과 오늘 (14:1-12)

1. 은총과 평화

(1:1-7)

역사와 해석

오늘 우리는 대략 2천 년 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관해서도 필요한 대로 살펴볼 것이며, 로마 공동체의 상황도 역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바울의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독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순간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서 읽은 초기 기독교가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전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성서와 경전의 사건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에 의해 기록된 순간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독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읽은 로마 공동체와 그것을 전승해온 여러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해석한 2천년 역사의 모든 교회가 오늘 그 로마서를 다시 읽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와 해석은 앞으로 우리의 로마서 공부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끌여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로마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역시 그것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긴 합니다만 역사 안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해석한 사도들과 속사도와 교부들, 그리고 역사적 교회가 없었다면 그 계시의 실효성은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해석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구원 사건으로서의 심층적 의미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의존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에 의존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지만 그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문제로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사실만 더 짚도록 합시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는 원래의 로마서가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현실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진리의 지평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도그마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로마서를 해석해온 2천년 기독교 역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서읽기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텍스트가 폐쇄된 교리로만 작용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해석되는 데만 머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성서읽기는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죽은 공부에 불과합니다. 역사와 오늘이 변증법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공부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의 영인 성령이 도우신다면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를 자기에 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1절). 이것은 소개라고 해도 어떤 이력서 같은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적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에 들른 적이 없으며, 이 편지를 받아보아야 할 사람들과도 별로 깊은 사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인 16장에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로마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명이 거론된 것은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불과하겠지요. 어쨌든지 바울은 지금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울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바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 승천한 예수가 바울에게 현현하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 얽힌 실체적 진실을 잘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그런 한 순간의 비상한 현상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바꿀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전후에는 본인이 다 밝히지 않는 어떤 사연들이 놓여 있는 게 분명하리라는 사실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다시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되며, 또한 이렇듯 지상으로의 강림이 유독 바울에게만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이 경험이 승천했던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경험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만 둡시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그냥 덮어두는 게 성서 읽기의 지혜입니다. 신앙적 편의주의에 빠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는 로마서를 읽는데, 또한 기독교의 본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결국 사도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도 역시 사도라고 한다면(롬 1:6 참조)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낱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단순한 뜻이지만 성서에 의해서 이 낱말은 훨씬 심원한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계된 일만이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차원에 속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쑥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개역성서는 택정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사명이라고, 루터 번역은 부르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간증하듯이 자기의 소명의식을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으로 이 사명 문제가 해결될 듯이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열광적 상태는 그것 자체로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열광주의를 사명감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완전히 휩싸이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에서의 핵심은 자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 영만

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영의 의지가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흡사 어떤 위대한 작곡가가 음악적 영감에 완전히 빠져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인간적인 욕망을 사명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호도 합니다. 교회를 쪼개면서도 이것을 신앙적 결단으로 간주합니다. 담임목사 세습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자기기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겉으로는 사명감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명감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하느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4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이 예수는 육체적인 면에서 다윗의 후손이며, 영적인 면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인정)된 분입니다. 바로 이 서술에 기독교의 본질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한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바울의 모든 증언은 이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도 역시 그렇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 사실을 도와주는 각주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기독교 신학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 이 주제가 한 두 마디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지, 역으로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기도 하다는 말인지. 성서에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문제로 3백 년 동안 격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단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열린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인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트의 설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계시이며,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발견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인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필연성의 등장이고, 예수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자, 그리고 비명시적인 자를 예기(豫期)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간의 끝으로서, 역설로서, 원(原)역사로서, 그리고 승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로마서 주석, 8).

은혜와 평화

바울은 위에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정식으로 축원 인사를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인사법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루터 번역에서는 Heilig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에 보면 성도는 순교 당한 후 하늘에 올라간 성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이런 성자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성자들과 같은 차원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는 순교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결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자들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순교는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다가 당하는 죽음을 뜻하는데, 초기 기독교는 이런 순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교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순교보다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 청부론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도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자발적 가난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이 바로 청부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로 사는 게 죄라거나 가난하게 사는 게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기독교인 개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계량화하거나 재단할 수 없고 개인의 신앙적 양심과 자유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가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물량적인 이 시대정신에 빠져들었다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훼손되는 위기를 직감할 뿐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 중의 하나가 바로 순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미 실제적인 순교가 지나간 시대에 살지만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순교를 그 바탕에 놓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순교 정신은 인간, 권력, 물질을 절대화하는 시대정신과의 결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역사적 순교 사건도 사실은 그 시대가 당연한 것으로 요구한 것을 저항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입니다. 로마 권력은 문화나 종교를 이유로 어떤 민족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 다. 그들의 관심은 로마 체제의 안정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교적 차이는 용납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교생활에 자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로마 황제의 권위만 손상시키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퀴리오스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본뜬 동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 다. 이런 긴장 가운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들의 밥이나 검투사들의 칼에 희생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정신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신처럼 작용하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허울만 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처세술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매사에 세상과 이진투구 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허망하고 순간적인 것을 절대시하는 악한 힘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바울의 축원 인사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 은혜와 평화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원 형식이 그 당시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던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보편적인 관용어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일상적 인사인 샬롬에서 근동지역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 관용어였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여기서 이 개념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용어에 기독교적인 세례를 주는 것 말입니다. 이런 작업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을 은혜라고 확실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확연하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작은 것들에만 마음을 쏟아 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듯 복잡합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만, 속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기업적에 도취해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부터 개 교회 차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집을 불리느냐에 모아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일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평화는 모든 종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장 근본에 놓여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전쟁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부시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황도 반전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라크를 공격하면 후세인은 몰아낼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부녀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카터가 전쟁은 평화적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계속해야지 전쟁을 벌일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2003년 3월 당시의 상황).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역시 평화는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소유는 늘 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세계의 평화는 별로 진척되지 않았습나다.

바울은 이런 은혜와 평화가 사람들이 물건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증거 합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에 마음을 여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주어질 수 있는 은혜와 평화가 왜 우리의 삶에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 복음과 하나님의 의

(1:8-17)

지난 시간에 잠시 지적한대로 바울의 사도성은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확고부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공동체 앞에서도 이런 점에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풍문으로만 전해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방문해본 적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사도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람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움츠러들고, 때로는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외쳐졌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적지 않지만 기독교가 체계를 잡아나갔던 초기이기 때문에 훨씬 투쟁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할례당)와 기독교의 주변 환경이라 할 헬라사상(영지주의)이 나뉘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던 시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격랑의 한 가운데 서 있던 바울은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이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공동체가 바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마당에 우선 편지로나마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요.

로마 교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서(10, 13, 15절) 로마 공동체 방문이 지금껏 막혔지만 불원간 가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로마 공동체 앞에서 느끼는 바울의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28:16 이하)이 서술하고 있듯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체포당하여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로마에 끌려갔다는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서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사도들 중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실증은 없습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도들은 유대교의 박해 앞에서도 굳건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모(母)교회가 세계 교회를 끌여가는 중심에 있어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로마 교회가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잘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의 관점만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문화를 수용함으로써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내로라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즐비했습니다만 유대교라는 특정한 종교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꽃을 피우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는 배타적인 종교였던 반면에

로마의 종교(신화)는 포괄적이었습니다. 로마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세력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로마 문화의 옷을 입고 유럽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삶의 형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형식들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정신, 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헬라 철학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 사회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사명과 연결해서 생각해본다면, 그 당시의 이런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서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모교회처럼 근본적인 교리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의 교리가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되는 작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껏해야 예배를 시청각적 감각으로 드린다거나 복지관을 세우는 것뿐이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대정신과의 치열한 논쟁을 기피하고 두려워합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늘 주변 세계와의 이런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기독교 선교는 독선적입니다. 대화는 없고 자기주장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로마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교회는 잘 된 일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요? 로마 교회를 둘러싼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로마라는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순리이며,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훨씬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고, 39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승인한 다음부터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 종교로서 정치종교화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제국의 속성은 강압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요즘 미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태도가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세기 이후의 기독교는 유럽에서 이런 로마 제국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한 하나님, 한 교황, 한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치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어떤 논리나 진리보다는 교권으로 기독교를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기독교가 문화의 옷을 입기는 입어야 하지만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지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는 이렇듯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춘 교회로 역사에 등장했는데, 바울이 그런 역사적 교회를 기대했음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전하고 싶어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6,17절에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두 구절에 등장하는 용어인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의가 아마 로마서의 전체 주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용어만 대략적으로 개념정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로마서 읽기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이라는 뜻의 헬라어 ‘소테리아’를 봅시다. 바울이 표현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고, 또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현실성(reality)들을 훼손하는 일이 있습니다. 흡사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됨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일단은 옳기는 하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없이 기계적인 의미에서 구원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싸구려 상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본혜퍼가 그런 말을 했지요? 값싼 은혜를 그만 구하라고 말입니다. 대형매장에서 정가 이하로 상품을 팔듯이 구원을 팔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품은 싸서 좋기는 한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은 일종의 교양이나 윤리와 비슷한 차원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론이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담겨져야 할 절대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공동체인 교회가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 반증입니다. 예컨대 당회원들이 이 구원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교육관이나 수양관, 복지관을 짓기 위한 방법만 찾습니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과 교회의 구원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 공동의회 때 있게 될 장로투표에 온 신경을 쏟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낯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또는 상대적으로 것에만 그렇게 열을 올릴까 하는 낯섭입니다. 물론 교회의 관리와 운영에 관계된 일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복지관도 짓고, 장로도 세워야 하고, 성가대 수련회도 다녀와야 하겠지요. 다만 그런 것들은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추어 필요한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것에 교회의 생명을 걸어놓습니다. 그런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밀고 나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갈라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먹살잡이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곧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키를 한 치도 키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두 가지로 상반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교만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경제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모두 파헤칠 것처럼, 또는 기업 활동이나 주식투자 같은 일을 통해서 인류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의 의식을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만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태도들은 낭만적인 역사진보사관에 기초를 둔 근대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성취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별로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는 구원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사이비 메시아니즘과 투쟁하는 중입니다.

믿음

바울은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만 따지면 우리 정통 교인들보다 이단들이나 소종파 신자들이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태도라 할 수 있는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을만한 대상을 믿어야 그 믿음이 정상적인 것이지,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나 광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변증(apologetics)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지 믿을 만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다른 게 아니냐고 질문할 분이 있을 겁니다. 성서의 내용 중에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고,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증거 되기도 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믿어야 할 것과 우리의 인식 범주를 뛰어넘는 사건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는 게 바람직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의 것은 주로 과거의 사건이고, 뒤의 것은 주로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과거로 흘러간 사건들은 우리의 인식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만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사건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굳이 교의학적 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창조사건은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믿어야 하지만, 종말사건은 그것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이해의 대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반대로 실증적 이성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양극단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은 바로 ‘의’(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일종의 맛보기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진술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번 다루어질 예정이니까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바울의 진술만 검토하는 것으로 접겠습니다.

이 주장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십자가에 죽고, 삼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명한 주장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 전도이고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특별한 사건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에서

풀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 십자가 사건만 간단히 해석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선 인간이 판단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종교와 로마의 정치가 예수를 불의한 사람으로 선고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십자가의(고전 1:23)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생명이라 할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넨베르크가 언급했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어떤 인간적 실패와 절망도 더 이상 실패와 절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윤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세상 사람들의 의, 또는 타종교와 선한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3. 자연계시에 대해

(1:18-32)

진리론적 변증학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는 일종의 신흥종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진리론적으로 변증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증학은 그 이후로도 기독교가 이방 세계를 의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늘 중요한 자기 해명의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일방적인 선포로 끝내지 않고 진리(알레테이아)의 차원에서 변증해나간다는 이런 논의는 초기 기독교와 역사적 기독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비록 교회 밖의 세계가 당장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보편적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진리론적 논의와 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시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형식 논리에만 매달림으로써 해석학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무시하는 이유는 성숙이원론에 빠져서 자기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예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현상은 한 사실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실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세계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무리 세계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세계와 역사 안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소통의 곤란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실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내용을 풀어내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독단적 태도로 인해서 이 세계와의 말문이 막힌다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자폐증 환자처럼 말문이 막히는 세계로 숨지 말고 말문이 트이는 세계로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믿음, 사랑, 정의, 평화를 세상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닫아두는 것이 바로 말문을 닫아두는 것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질문하고 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진리론적 토대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Wahrheit und Methode>라는 책으로 현대 해석학에 새로운 장을 연 이 사람이 백 살 되던 2000년 초에 ‘슈피겔’ 지(誌)의 편집장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학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철학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와 존재,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 역사와 종말, 정치와 법, 교육과 경제 등등, 우리의 눈에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신앙과 신학도 역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근본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십일조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근원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타당한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할 게 많습니다. 더구나 그런 것들은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라 종말까지 열려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삶’을 위해서 질문하기만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적인 역동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생활에서는 이런 진리론적인 질문이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데도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습니다. 교권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제거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로서는 그렇게 해야 교인들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개인 기독교인으로서도 이런 질문이 유발할지도 모를 신앙의 모험을 받아들이기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 없이 사는 게 모두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기독교 공동체가 흡사 그 어떤 논리와 설득력 없는 교주의 지침이 절대적 준거로 작용하는 사이비 집단과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자연계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진리론적인 토대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방인 세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로마 문명을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이 로마 문명의 특징은 불의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허황하며 어리석은 마음에 빠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21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아직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만 것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릴만한 이유는(18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19절).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이 창조 세계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20절)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창조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인 논의를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몇 가지 단서만 대략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서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세계는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대립적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인격자의 개입이라는 주장과 “저절로 그렇게 있음”이라는 주장 사이의 논란도 무의미합니다. 앞의 것은 기독교와 과학의 논란이고 뒤의 것은 기독교와 동양사상과의 논란인데,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한 규정을 같은 범주에 끌어들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굳이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또는 자연으로 하여금 저절로 있도록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서와 신학에서의 논란은 이 자연이 원래 창조된 그 자연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부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도 역시 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에서 인간의 영혼에 원래의 창조된 그 모습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손상되었는지가 여기서 관건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장구한 교리사적 흔적을 모두 살펴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바르트와 브룬너 사이에 전개된 논쟁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자연신학 문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작용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논점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되었는지, 또는 그때 살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요. 오늘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삼천리강산과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우리의 조상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우리 민족들도 여전히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활동을 제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이를 익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라다크 마을을 소개한 책 <오래된 미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자연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우리와 다른 티베트 불교를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시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우리의 구원론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또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연신학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신학, 또는 자연계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종교 다원적인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샤머니즘이나 불교는 어떤 면에서 자연종교입니다. 그들은 자연에 깃든 신성(불성)을 보고 거기서 구원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는 인간을 숙명주의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근본에는 자연과의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풍수지리설도 역시 그렇지요. 불교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신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자연과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별심을 없애는 게 깨달음의 출발입니다. 노자와 장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연과 도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여러 종교들과 같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종교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할 사람일까요? 그들의 구원관은 모두가 반(反)기독교적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창조 안에 깃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서 자연종교와의 대화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대답은 미루어 둡시다.

자연세계의 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로마인들의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이나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23절). 고대인들은 어느 민족이나 토테미즘의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곰이나 호랑이라고 한다면, 유럽인들에게는 소, 늑대, 특히 독수리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런 형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했지만,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도 가나안의 바알을 종종 따랐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일종의 종교의식 때 동물의 형상을 사용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세계에 무엇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산과 풍요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24-27절에 묘사된 그 당시의 성(性)윤리에 대한 비판은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이라

기보다는 유한한 것을 절대화함으로써 나오게 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에 따르면 24절의 정욕은 짐승 같은 성욕을 뜻하고, 26절의 부끄러운 일은 성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특히 26,27절은 동성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미 이런 동성애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의 뿌리는 인류 역사와 맞먹을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성간의 관계만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유별나게 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우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부적절합니다. 물론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를 짝으로 만들어주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벗어나는 관계는 죄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고대 근동이라는 특수한 문명의 세계관적 한계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적용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성애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결국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물로 바꿔치기 하는 그 당시의 문명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즉 바울의 눈에는 탐욕에 근거한 로마 문명의 결과가 동성애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29절부터 바울은 인간의 죄에 해당되는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무지한 자. 이런 목록은 로마서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나 랍비 전통에서 언급되던 개념들입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많은 죄의 항목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심신을 수련해도 역시 이런 악한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느 것(하나님, 혹은 자연)에 의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문명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를 독립적으로 성취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명이 인간의 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만한 단계가 아니지만, 다만 문명이 자연을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자연 계시를 가로막을 개연성이 많다는 점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바울은 지금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따지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 사회를 향해 보편적 인식론에 근거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 이후 만물에 계시하셨는데도 오히려 썩고 말 사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논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는 동성애와 탐욕 같은 요소들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 때문에 내린 진노가 바로 부도덕한 삶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도덕성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진노)이 내리는 방식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어 버려두사”라는 단어가 24절, 26절, 28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당장 벼락을 맞든지, 사업이 망해야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의롭지 못한 삶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구약성서의 예언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옳습니다. 악은 그것 자체로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예컨대 마약이나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순전히 돈 버는 일에만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수는 있겠지만 그런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판넬베르크는 현대인들이 노동과 오락 사이만 오락가락 하면서 인생을 소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옳은 지적입니다. 결국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교회가 성장지상주의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2:1-16)

칭의론 문제

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로마서 1장 후반부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만 보면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종교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공격합니다. 물론 인간이 죄의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며,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지만 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숙명주의적 죄론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구체적인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바울의 이런 진술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1:18-32절은 이방인(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오늘 읽은 2:1-16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이나 유대인 양자 모두 나름대로의 확실한 의(義)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인들의 법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도 결국 썩게 될 것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의도 역시 썩을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경우에 그런 기준들이 매우 세련된 문화와 교양으로 나타나며, 유대인들에게 매우 종교적 의미가 풍부한 율법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못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그런 상태에 내버려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의의 문제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대개는 정치적인 로마인들이나 철학적인 헬라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의로워지고 싶다는 말이 곧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욕망에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활동에서도 우리는 대개가 남의 이목을 중요시하고, 가능한대로 남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심정이야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구조화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이나 교회 봉사, 그리고 성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기준을 두고 움직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데서 의(옳음)를 획득합니다. 세속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노골적입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일들이 결국은 남에게서 인정받는 것과 직결됩니다. 만약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소진시켜가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려는 바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와 심판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경향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게 될 우상”으로 바꾸려

는 삶의 경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함정

특히 바울은 2장부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그 율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유대인은 단순히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의롭다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의 현실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1절). 3절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율법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하던 바리새인은 가장 전형적인 종교인이며, 경건주의자이며,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나누었습니다. 일반론적인 면에서 보면 율법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율법은 지금의 기독교 교리와 같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화함으로써, 결국 율법주의로 빠져들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분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런 율법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현 그대로 위선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굶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빵을 훔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판사가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자신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하라고 학생들을 다그치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별로 공부하지 않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 수행은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이방인 형제들에게까지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이 다시 자기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2절)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편부당하게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율법을 형식적으로 얼마나 지켰는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의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6절)고 진술합니다. 이 말을 자칫 인과응보의 차원이나 인간적 평가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즉 있는 그대로의 삶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녔는가,

우리가 현금을 얼마나 냈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사는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가의 차원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생활 자체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두었던 사람들로서는 실망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은 14,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쓰여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과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생각이 그 행위에 대하여 함께 증언합니다.”(15절). 기독교라는 종교 형식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심과 생각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가 증언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7,8절에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썅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율법주의의 함정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형식적인 행위는 그것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가 전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행위가 아니라 썅지 않는 본질(영성, 하나님 나라)을 추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적 삶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조화를 이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서 패거리를 짓고, 진리에 불순종하며, 오히려 진리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이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기 힘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 앞에서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주한 미군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분단국으로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정치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 이런 문제 만이겠습니까? 반(反)폭력, 산아제한, 유전공학, 생태학 등에 걸친 많은 문제들은 진리와 비(非)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좀 더 예민해지면 이런 미묘한 사회 문제에서도 역시 어떤 방향이 주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패거리 짓는 일과 불의에 약삭빠른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사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신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흥분한 상태에 빠지면 판단능력도 역시 축소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심판의 방식

7-10절 사이에 악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전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이, 후자에 속한 이들에게는 영생이 임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역본에는 악한 이들에게 비탄과 두려움과 불쾌와 성냄이, 선한 이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평화와 영생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된대거나 악한 사람이 썅작 망하게 되

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론된 이 단어들은 대개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최고급의 호화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거나 한 것처럼,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옥의 두려움에 근거하거나, 천당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경험하는 생명형식이 아무리 최고의 상태로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절대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조건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행복에서 완전하게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지옥에 가겠다는 마틴 루터의 진술은 기독교의 구원론적 지평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상사처럼 개입해있는 비탄, 두려움, 불쾌, 성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작은 일로 두려워하고 화를 냅니다.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특하면 자살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평소에 두려움으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2003년) 봄 틱날탄의 책 <화>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넉넉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현대인들이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인과 목사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싸움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여전히 분노와 성을 삭힐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늘 인간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평화와 영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평화와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진정한 시인이 언어의 존재론적 깊이에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

바울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3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건강하고 사업도 잘되고, 자식들도 잘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관용, 인내 때문일 뿐입니다(4절). 앞 단락에서 말한 두려움과 비탄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입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로 임하게 됩니다. 그 때에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16절). 그런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 관용, 인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독특한 역사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인내심이 시험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사를 기계적인 인과응보사관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실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삼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무화과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하겠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버리십시오.”(눅 13:8,9). 소위 탕자의 비유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심판 표상이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서에서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현대인들에게 공연한 공포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서의 심판 표상이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심판 표상의 핵심은 역사의 단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계와 문화와 역사의 발전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가 해체되는 때(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즉 인간의 모든 것을, 숨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16절)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 발전, 또는 종교적 기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가 결국 판단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신비이듯이 심판도 역시 신비(은폐)의 방식으로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개입한다고 말합니다.

5. 율법 선생에게

(2:17-29)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혼동했다는 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신성을 인간이 만든 유한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격한 어조로 확증하고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생의 길

17-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매우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자처합니다. 어두움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자처합니다.” 이런 서술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선택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관한, 즉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모범적인 삶에 대한 동경이 내재해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 일반에게 해당되는 서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 이런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칭찬 받을 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하고, 드물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공교육도 역시 학생들을 모범생으로 키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 키우기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 제고 문제는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필요도 없이 우리 교육의 가장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환경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위장전입, 영 교시 수업, 자율학습, 채수 삼수 등,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용어들은 한결같이 경쟁력 제고를 최고의 교육 목표로 삼기 때문에 파생된 현상들입니다. 어떤 체제이건 나름대로의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의 종속 변수이어야 할 경쟁이 교육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교육의 왜곡현상을 보게 됩니다. 모범생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교육의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궁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신앙교육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생활이 신자 상호간에 경쟁하게 만들거나 교회 상호간에 경쟁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식용류, 세탁기, 금반지, 심지어는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 해야겠다는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인간적인 경쟁심을 이용해서 전파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경쟁심의 발로가

우리를 신앙의 본질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기울어지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없다

바울이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유대 선생들의 특징은 그들이 선생으로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자처한다는 것은 학생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먼저 배운 게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만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의 존재론적 깊이를 생각한다면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일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 수학 선생이 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학생들에게 수학의 원리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선생의 업무라고 한다면 선생 노릇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수학 선생은 수학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는지 전혀 모릅니다. 학생들의 운명을 모르는 사람이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 선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가르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칠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선생들은 선생으로 자처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앞에 놓인 진리의 길을 단지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스승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배우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에게도 많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가능한대로 빨리 자기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배움이라는 사건이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진작 깨달은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생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모든 진리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듯이 열변을 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맹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테 선생 노릇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 탈이 있다.”(人之患在好爲人師).

배우지 않는 선생

바울은 이제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21절).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신이 간음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상 앞에 놓였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율법 선생들은 간음과 우상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종종 일어났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쏠릴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언행이 일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뿌리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배우지 않는다는 데에 놓여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는 잘 하지만 자기성찰은

없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급 지도자들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배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알고 있는 교리와 교회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법론에 모아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명제를 그럴듯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생명의 길(道)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완료된, 굳어진 규범으로만 생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곳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놓여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길의 메타포는 되어감, 도중, 미래 같은 개념들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물리학적 사실들도 과정인데 하물며 물리학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자기를 들어내는 진리는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길의 문제를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출세해서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열심히 갑니다만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집에서 여기 공부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얻어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는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는 방법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방법과 상관없이 “가고 있음”에 집중합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은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봄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달이나 별을 보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자의 사람은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만 열심히 밟을 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빨리 가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은총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생명현상을 외면하니까 그것을 배울 필요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모두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영성 없는 종교의식

위에서 설명한대로 율법 선생들은 이미 율법 수호에만 관심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이 드러내고자 한 하나님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을 가리게 되면 인간은 훨씬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만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율법의 절대화이며, 다른 한쪽은 그것의 상대화입니다.

바울은 율법 선생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상호관계성을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일단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수많은 구전과 성문화된 시행세칙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대한 유권해석이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세세한 부분의 삶까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시콜콜하게 해석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칙들을 문자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율법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바울 당시에는 할례 논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이 할례 문제가 상당히 자주 거론됩니다. 심지어는 할례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바울은 율법을 범하면서 겉으로만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따르지 않은 채 행하는 종교의식(儀式)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

입니다. 이는 곧 영성이 없는 종교의식의 공허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영성은 생명(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이 없다는 것은 곧 영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특히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영(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자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시편, 그리고 신약성서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곧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생명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단지 우리의 생물학적인 현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늘 새롭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영성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화려하고 세련된 종교의식은 할례가 그렇듯이 자기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영에 있지,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은 영적인지, 아니면 인간적인지 명백하게 검증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회의 예배, 설교, 전도, 친교 등, 이런 모든 종교행위를 통해서 참된 사랑과 평화와 해방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오히려 반목, 분노, 탐욕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만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남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철학 선생은 많지만,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철학자는 드물다고 말했는데, 이게 교회의 영성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바울은 오늘 진리론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본질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거의 결정적인 신앙 과정으로 여겨지던 그 당시에 바울은 겉모양의 유대인이 아니라 숨어있는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며,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28,29)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율법 선생들은 아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역으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선생들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만 받을 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이 표현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면 바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이게 자칫 자기의 무능력이나 불성실에 대한 합리화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칭찬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훼손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칭찬은 일관된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주게 되면 결국 자기 본래의 모습은 실종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만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예로,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이나 옷의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물론 심미적 감수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신분 상승만을 지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남자들의 삶도 역시 이런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야말로 추상이며, 껍질입니다.

삶의 실질(reality)은 영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가장 구체적이며 리얼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칭찬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영을 영으로 체험하기에 우리의 오감이 너무나 잡다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오감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지만 영적으로 허기가 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보다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간혹 근원을 모르는 불안에 휩싸이는 것도 이런 조짐 중의 하나입니다. 영의 활동에 대한 체험의 증거인 성서와 기독교 2천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6. 율법과 죄 인식

(3:1-20)

바울은 앞서 로마서 1, 2장에서 율법과 그것의 상징적 조치인 할례가 그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롬 2:29). 이런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여기 3장 앞부분에서 다루어지며, 이어서 최종적인 바울의 결론이 제시됩니다.

할례의 유익은 없는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바울의 주장은 몹시 거슬리는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것 자체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할례를 상대화하는 바울의 언급이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속해 있는 전통 안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리의 영인 성령과의 영적인 소통에 마음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 그런 습관적 생각과 행동에서 차츰 벗어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두루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심 없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타산이 거의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엉켜있는 좁은 길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사람을 옥하면서 차를 무서워할 줄 모른다고 하고, 걷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은 안중에 없이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 측 인사들이 이진투구 식으로 싸웠습니다. 대개의 주장들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서만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냉소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투철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로기아 투 데우)을 말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여러 거룩한 문서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이들의 거룩한 문서에는 오늘 우리가 구약성서로 분류하고 있는 정경만이 아니라 외경과 위경 및 여러 종교적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바클레이에 따르면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언어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되는 게 마땅한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구약성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드러났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창조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역사적 결과는 유대인들의 역사 경험과 그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깊은 역사적 경험과 그런 인식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중들이 가나안의 바알에게 기울어질 때마다,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방인들의 종교에 기울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훨씬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감으로써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주어졌지만 참된 음악인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음악의 세계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훗날 전혀 다른 음악적인 깊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앎)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삶)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의 앎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에 있다는 점에서(롬 2:6)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칫 믿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고 그것에 걸맞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종교적 교리 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 교리가 드러내는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는 종말론적 구원의 내용들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실천과, 또한 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의 기독교 공동체보다 잘 알고 있는 집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교회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나 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논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씀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 상실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는 유대인의 불의가 죄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1-8절). 이 단락에는 매우 까다로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

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공부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항의에 담긴 문제점과 그들의 항의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정리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컨대 십계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기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며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할례, 또는 선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은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삶이 중요하다는 바울의 주장을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불의를, 또한 인간의 방종에 대한 합리화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타적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과업이요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오래 전 고진하 목사가 <기독교 사상>에 “누가 하늘을 독점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사찰에 불을 지른다거나 불상의 목을 자르는 일들이 일어나서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매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은 자기들의 종교 경험을 어떤 특권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이런 삶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맹목적 약속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입을 막는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아무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9).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역사에서 주어진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헬라인은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 받습니다. 만약 헬라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중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19).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헬라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율법 선생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헬라인들을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으로 심판한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율법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율법의 실천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율법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특하면 죄인들을 분류했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이단논쟁이나 마녀사냥 같은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늘 진리의 차원에서 전개돼야지 자기의 기준에서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솔한 태도입니다.

율법과 칭의

긴 논쟁을 거친 다음에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 줄 따름입니다.”(20). 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옳음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이런 진단에는 (율)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법은 간단할수록, 더 나아가서 없을수록 훨씬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은 인간들끼리의 상호 신뢰가 깨어졌을 때 그 공동체의 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박 아무개가 김 아무개에게서 소 한 마리를 빌렸습니다. 한 달간 사용하다가 쌀 두 말을 값으로 치르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무개가 소를 부리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처음의 약속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합니까?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적절한 타협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위해서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인 요소이기보다는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요소인 법이 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독교의 율법이라 할 교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사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교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쓸데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교생활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할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여전히 교리와 법이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총의 질서가 사라졌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일반 아마추어 테니스 동호인들의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생각 없이, 즉 습관적으로만 테니스를 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라켓으로 공을 칠 때의 느낌을 예민하게 가져야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되도록 집중해야 하는데, 대개 늘 하는 식으로 휘두르기만 하기 때문에 실력이 제자리입니다.

습관적으로 테니스를 치듯이 율법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정작 필요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율법(교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전혀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야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타당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분을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직접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서,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들어내시기 때문에 성서와 기독교 교리와 이 세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실존을 매우 명확하게 해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음으로써, 즉 불안에 대한 실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율법일 뿐입니다. 인간 구원은 법이 아니라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법은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할 뿐입니다. 구원이 왜 하나님의 은총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21절 이후로 상당히 긴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7. 새로운 의

(3:21-31)

율법의(義), 하나님의(義)

바울은 지금 매우 고단한 싸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통한 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바울의 이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일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이 논리가 그 당시와 오늘의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심성이 악하다거나 믿음이 없다거나 생각이 짧다는 식으로 대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훨씬 타당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너머에, 또는 그것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의의 길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입장을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해 있던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쪽은 진리와 생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쪽은 율법과 전통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의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고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저술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율법으로 인해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각주로 달았다면 오늘의 본문도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해졌을 텐데, 그런 시도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아마 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들이 역사적으로 앞서 기록된 탓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 생전에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바울로서는 복음서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바리새인 사이에,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복음과 율법 사이에 소통이 불가능한 이유는 과학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 쉬프트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천동설이라는 물리학적 구도에 묶여있는 사회는 그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학설이 완벽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가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학설이 등장한다고 해서 과거의 학설이 당장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그것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 역사의 과거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혁명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패러다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서문자주의가 그 한 예입니다. 근본주의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정서 속에, 그 인식 속에 각인된 독자영감설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만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성서를 번역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자유주의적 번역이라고 해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성경은 폐기처분되고, 다시 보완된 성경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돌아보면 참으로 웃기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경이라고 불러야한다면 대한성서공회와 대립되는 대한성경공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자영감설이 교회 전통을 신앙의 규범으로 삼으려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대한 대립개념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바울은 믿음을 통한 의(義)라는 자신의 주장을 “차별이 없으신”(22절)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충합니다. 이 주장은 29절에서도 거의 같은 논조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율법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생각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담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는 사실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상대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들만 상대한 게 아니라 죄인이나 부도덕한 사람들과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만나셨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의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재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천 년 전 율법적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울의 주장을 거부한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종교적 집착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일종의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설명되곤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십일조 헌금을 드리면 물질적인 축복이 임한다거나, 기도하면 가족들이 평안해진다거나, 여러 종류의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존재론적 기쁨과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물질적인, 또는 사회신분이 상승되는 기대에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약간 말이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만 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축복이며,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끊어서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통한 의가 극복되었으며, 모든 인간은 이제 그런 종교적 업적 없이 단지 믿음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일관된 칭의론입니다. 소위 이신칭의(以)信稱義입니다(30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칭의론에 대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로움의 획득이 믿음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믿음과 더불어 인간의 행위도 필요한지에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주장에 따라서 이런 인간의 행위까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믿음에 의한 하나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합니다. 구원론에서도 역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업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총만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자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우선 존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존재는 열매를 보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가 인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믿음이, 인식론적으로는 행위가 우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 모두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착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존재의 변화인 믿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단 이 믿음은 인간의 삶에 놓여 있는 수행까지를 포함하는 차원으로 심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

바울이 율법을 통한 의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율법의 본성이 자기 자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27,28절). 우리의 윤리적 업적과 종교적 업적을 칭의의 토대로 간주하는 생각이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몇 번 지적된 것이지만, 아무리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한 의만을 주장한다면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뿐입니다. 25절에 기록된 대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믿음의 방식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역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자기 자랑이라고 본 바울의 통찰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인간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일 때나, 동창회로 모일 때 제일 많은 대화의 주제가 자기 남편이나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줌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남자들이나, 더 나아가서 학교 선생들에게도 역시 해당됩니다. 대학 총장이나 학장들도 역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일들을, 간혹 쓸데없는 일들을 펼칩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체장들이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시행정을 펼친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런 위험성이 큼니다. 내가 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작용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대개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는 자랑거리입니다. 가끔 장로 장립식이나 헌당식 같은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명분으로만 예수님의 영광이지 실제로는 사람들의 영광을 찾는 것 같이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심 없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온통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나열하는 데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칭의론입니다.

율법의 토대로서의 믿음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용도 폐기되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존중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성은 곧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즉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사건을 다원적 시각으로, 특히 타종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옳은 것입니다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은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앞서 몇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율법 있는 사람과 율법 없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듯이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종교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 한 통의 수박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수박의 속살을 맛본 사람들이지만, 수박 그림만 본 사람들은 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직접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수박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박을 중심으로 한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접 수박을 먹어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그림만으로, 또는 수박 껍질만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직접 그 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것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박 그림이나 껍질만 아는 것은 결코 수박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타종교와는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훨씬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종교적이었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절대화함으로써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율법 종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타종교 안에도 진리의 영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실 근본주의적 믿음은 진리의 영을 자기들의 전통 안에 문자적으로 가두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

어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개방된 마음은 동양종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유유자적하는 관조뿐이라거나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꿈꾸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명백한 목표를 움직여 나갑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선교의 목표는 구원의 초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타종교인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보편적 진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사물을 신처럼 섬기는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부활의 생명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해명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독단으로 변질됩니다.

법을 넘어서

롬 3:21-31

법의 한계

우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법대로 하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법치주의가 최선이라는 의미이겠지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작게는 시험 보는 학생들의 부정행위에서부터 크게는 뇌물을 통해서 탈세를 한다거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같은 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인간 사회 치고 이런 불법이 없는 곳은 없겠지만 경제 수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정, 불법적인 현상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했던 군사정권과 물불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경제지상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했다는 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이 사회가 건전하게 작동하려면 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실증주의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가 훨씬 심각한 게 아닐까요? 유신헌법도 법이었습니디. 인혁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관들은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그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평생 감옥에 넣거나 죽게 한 일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지키는 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법 행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한탄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합법을 가장한 악한 반사회적 행위는 법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이 사회를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인의 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도 역시 이런 법의 한계, 즉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21절). 바리새인 중에서도 각별히 율법에 전념했던 바울이, 또한 지중해 연안의 많은 식민지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로마법의 위대성을 익히 알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주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과의 바른 관계를 얻는 데에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바울의 이 주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은 인간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의 총체입니다. 율법에는 기도, 금식, 헌금 같은 각종 종교적인 의무 규정이나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병든 사람을 돌보는 윤리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율법은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 규정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이런 율법의 귀한 가치들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양심적으로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옳은 주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모범생이 된다면 나쁠 건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범생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율법과 아무 상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모범적이고 가치 있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간혹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장려할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왜곡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왜 상대적인지 아시겠지요? 이 말은 곧 인간의 행위 자체가 그런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생각해봅시다. 어떤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 년 내도록, 혹은 수년에 걸쳐서 신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은 철야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일까요? 하루에 1분 기도드리는 것과 1시간 기도드리는 것과 5시간 기도드리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시간의 차이는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기도의 본질이 훼손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서 설명해볼까요? 학생들이 중간시험이나 학기말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1등과 10등과 30등이 갈립니다. 다른 친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점수를 잘 받았으니까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차이도 역시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과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도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는 조금 잘나거나 조금 못난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이기 때문에 그 분과의 관계도 역시 절대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분 앞에서는 기도를 조금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조금 더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조금 착하거나 조금 못했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두 딸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딸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사건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즉 우

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게 하신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25,26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참으셨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와 닿지 않겠지만, 이런 바울의 진술은 단지 형식적인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과 그 역사 전체를 정확하게 꿰어본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의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온갖 열정을 다 보입니다. 자기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몸을 불사를 정도로 수고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의 의에 치중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생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남에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가에 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식자랑에 열을 올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좋은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들을 예배에도 빠지게 할 정도로 악착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의 의보다는 인간의 의를 강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통한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한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27,28절). 놀라운 고백이지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대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론적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의, 그의 생명, 그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일임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명인 것 같지요? 말은 쉬운지 모르지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지 생명의 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2000년 일 년 동안 우리 가족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퍼붓는 비와 천둥 번개 속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그때 고1이었던 지에는 이런저런 일이 걱정되었지만, 초등4년이었던 지은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는 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늘 한정입니다. 더구나 나를 성취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결국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곧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즉 이 생명을 끌어가는 분은 곧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삶이 곧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는 율법 해체론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 너머의 세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8. 행위로부터의 해방

(4:1-12)

아브라함

앞서 3장 마지막 단락에서 믿음이 율법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세운다는 바울의 결론은 믿음과 율법이 등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그 앞에서 율법은 상대적이지만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점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듯이 믿음은 칭의론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연계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원(原)역사, 족장사(史), 이집트 생활, 광야 생활,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기, 귀환입니다. 원역사는 전설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족장사입니다. 이 족장사의 문을 여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팔레스틴 출신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그곳은 바로 바벨론 문명의 발생지인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아브라함 내외와 손자, 즉 막내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북쪽 지역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사실은 구약성서의 문명사적 배경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창조나 노아홍수 같은 설화는 성서와 바벨론 문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덴동산 설화도 역시 바벨론 문명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도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이 태어나기 십여 년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은 배다른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설화에는 어떤 면에서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과 두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매우 비인간적인 증오와 원한이 사무쳐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과 남편을 동침하게 함으로써 남편의 후손을 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후손 번식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씨를 잇게 해야겠다는 사라의 생각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사태가 약간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도 역시 변합니다. 이 일은 하갈이 두 번에 걸쳐서 집을 떠나게 되는 불상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창 16장) 하갈이 임신 중에 사라와 갈등을 빚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서가 보도하고 있는 대로 임신한 하갈이 임신 못한 사라를 업신여겼는지, 아니면 사라가 공연한 열등감으로 남편에게 하갈을 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하갈은 집을 뛰쳐나옵니다. 사라의 학대가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 후손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신을 불들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섰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도망가던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십 수 년 간 함께 살았습니다. 한참 세

월이 흐른 다음, 예상 밖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두 여인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하갈의 아들이며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사라는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일이 사라의 요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내어 쫓았습니다(창 21장).

옛날에는 비밀비재했을, 요즘도 있을법한 이런 사태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성서 기자의 눈이 아니라 제삼자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행동거지를 판단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흥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잠시 신세를 지러 갔을 때도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을 정도로 줯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 벌어진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도 난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약간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했더라도 이 두 여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원만한 방식으로 해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원한에 사무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근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창 21:11).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아들에게 칼 겨눔으로서 영적 카리스마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면의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위(作爲)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2절). 물론 아브라함에게 본받을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초지 문제로 조카 롯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네가 우 하면 나는 좌 하고, 네가 좌 하면 나는 우 하겠다.” 그 당시는 목초지가 바로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나그네를 접대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성서의 보도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언급했습니다.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낮추어 잡아도 좋은 건가요? 우리 주변에 선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살이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장애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스피스들의 수고를 보면 인간다움의 극치를 느낍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뒤늦게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엠에프 이후로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에게 끼니를 해결해준다거나, 때로는 외롭고 병든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의 다일공동체는 개신교 복지기관으로서 가장 대중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료병원까지 개원했더군요. 교회가 내부 소비에 머물러 있다 그 래도 밖을 향해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은 만사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선한 행위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게 아닐까요? 물론 이런 행위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전제할 때만 인정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전 13:3)는 바울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가 곧 사랑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윤리적 행위를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딱 들어맞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오웅진 신부의 복지시설인 ‘꽃동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겠지요. 결국 그런 불상사는 오웅진 신부의 과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완전하게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바울의 진단은 옳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작위적 행동이 늘 순수하게 지탱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한계가 있으며,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인간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적 한계는 앞서 여러 번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외면적 한계에 대해서 잠시 해명해보죠. 인간은 자기의 행위가 일으키게 될 그 파급력의 이면과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비록 선한 의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에 못지않은 어두운 면을 늘 갖게 마련이며, 더구나 그 사건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 26:11)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각도에서 새겨들을 수 있습니다.

무위(無爲)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행한 것이 없더라도 ...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5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혁명적인 발상 전환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하거나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별합니다. 만약 이런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작동되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라에서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똑같이 먹고살며,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이 똑같은 연봉을 받습니다. 이런 나라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마 20 장).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침 7시, 10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씩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대개가 남보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차이가 원천적으로 부정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

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더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행한 것이 없더라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파렴치한 행위를 변호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파렴치한 행위보다도 자신의 선입관이나 사회의 도덕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 말입니다. 자신을 세계 평화의 기준으로 강요하는 오늘의 미국은 그야말로 가장 비기독교적인 신앙의 전형이 아닐까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 정신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바심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규칙에 묶여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법에 딱 들어맞게 살아가는 방식을 찾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또는 “사탄의 유혹이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앞서 표현한대로 너무나 작위적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무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묶어두려는 작위가 아니라 생명의 영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어가도록 자기를 내버려두는 무위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신앙적 태도가 아닐까요?

믿음의 본질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훨씬 율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감각하다는 말은 주술적이라는 뜻이며, 율법적이라는 말은 여전히 인간의 업적과 행위에 치우쳐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심하게 주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제가 시시콜콜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이 분명합니다. 그저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는 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율법정신이라 할 업적주의가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아할 뿐만 아니라 슬프기도 합니다. 이 업적주의는 종교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곧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해보자는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술적인 문제들은 약간만 생각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대체로 적발해내고, 따라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업적주의적 신앙은 매우 경건하고 합리적인 가면으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신자들도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십일조 헌금을 드립니다. 물론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에 따르면 그것이 일종의 의무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십일조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키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간 데 없고, 율법적 형식으로 고

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해방은 어떤 책임감, 또는 성취감 으로부터 벗어날 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아무 것도 이루지 않아도, 더 나아가 경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획득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특히 자기 행위, 자기 업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생명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는 성취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의 토대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전혀 다른 삶의 토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결단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9. 부활, 새로운 생명

(4:13-25)

법이 문제다

지난 번 공부의 본문(4:1-12)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주제를 풀어나가는 적당한 역사적 재료인 것 같습니다. 창 1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바울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토를 달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지적은 사실적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을 벗어난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훨씬 보편적인 지평에서 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시금석을 믿음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당화시켜준다는 논리를 좀 더 극단적인 명제로 설명합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15절). 이런 문장이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아포리즘(경구)이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웬지 노자와 장자의 글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장자가 이 사회의 모든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오늘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법 무용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장자는 사회 질서만이 아니라 예술과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모든 형식을 거절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이것이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판사는 법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적용시킴으로써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약간 다른 시각이지만 톨스토이도 예술론에서 소수의 예술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발레 한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조연과 스태프, 또는 익명의 사람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투자된 노력에 비하면 그 예술 행위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법이 없는 상태는 단지 법에 대한 냉소주의라든지 또는 무정부주의는 아닙니다. 질서가 없이 창조적인 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법이 없는 상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질서인데, 이것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질서와 똑같습니다. 법의 질서와 은총의 질서, 이 두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질서는 전혀 다른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질서는 타율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지만 은총의 질서는 자율적이고 신 중심적입니다. 법은 자기 성취에 관심을 두지만 은총은 절대적인 생명의 힘에 자기를 맡깁니다. 법은 생명에서 반사되어 적용되는

혼적에 불과하지만 은총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창조의 질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17절). 바울은 여기서 또 다시 기독교의 신앙을 보편적이고 우주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부활과 창조의 행위자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인간은 자기 성취인 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가 베풀어주는 은총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부활과 창조의 지평에서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멀지 않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의 세포 하나로 그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 자체가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지만, 설령 먼 미래에 그런 기술 문제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명복제가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생명은 선천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태어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를 유전자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식능력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유전자 조작만으로 동일한 인간을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런 생명 복제 문제는 창조론과 연결됩니다. 물론 이 창조론은 창조가 완성되는 종말론과도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창조 사건의 본질에 대해 매우 귀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17절)는 표현에서 바울이 궁극적인 존재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 곧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성서의 창조론이 바로 이런 뜻이며, 이런 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있는 것과만 상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과도 상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왜 존재하는 것들은 있으며, 그 이외의 것들은 없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흡사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의 파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파장이 있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폐입니다. 하이데거는 없음으로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존재라고 말했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그 인식의 층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궁극적 생명의 세계인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숨어있는 세계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애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정적인 생명 형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부활의 현실들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실현시킬 수 없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오늘의 삶에 이런 부활의 빛을 비추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세계가 너무나 확연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면서 그를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믿음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으로 삼은 창세기의 보도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도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생명의 근원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결정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서의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밖에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늘 그런 식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바울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그 무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삶의 토대가 전혀 다른 것으로, 즉 절대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일에만 치중합니다. 이러한 두 태도를 구분하기는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인간은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시키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와 자기의 일에 집착해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운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정도의 세력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결과입니다. 교회당을 짓는 일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인 1970년대 초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면 강사가 와서 한참 분위기를 ‘업’ 시켜놓고, “천만 원짜리 없어요?”라는 식으로 신자들을 몰고 갑니다. 결국 모두가 얼마씩 약속을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차액을 건축 현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은 신부가 되게도 하고 승려가 되게도 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 자체는 크게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욱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교회당 건축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면서도 명분으로는 믿음을 내세운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만 말하자면 기성교회가 이단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미선교회 등등, 이런 소종파 내지 사이비 종파는 믿음을 내세워 비합리적이고 자학적인 행동까지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죽임에서 살림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제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든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해방시킨 분이라든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곧 구원받는 길은 죽음의 일에서 생명의 일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결단, 또는 신앙과 신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림의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행동도 마땅히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나 생명과 살림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2003년 5월) 새만금 갯벌 살리기의 일환으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삼보일배 고행에 나섰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티브이에서 크게 다룬 적도 있고, KNCC에서는 이들의 시위에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생태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폐기운동 같은 것은 너무나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입니다. 소비지향적 사회구조로부터 존재지향적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더구나 산업화 구조로부터 생태계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보일배에 나선 두 분 성직자의 고행은 이런 생태학적 전망에서만이 아니라 훨씬 더 심원한 종교적 깊이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종교적인 차이가 있지만 마음속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 종교적 깊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생명 중심주의로 생각의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갯벌을 없애고 농경지나 산업단지로 만들겠지만, 생명 중심이 되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생태계의 생명 메커니즘을 살려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자기의 육체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삼보일배의 고행에 나설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 장애인, 또는 양심수와 재소자, 노인과 어린이 등등, 사회적인 마이너리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도 역시 살림의 세계로 나가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구원에서 늘 한정적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생태계가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자연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롭게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허무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지고지선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임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혁명가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발전으로는 인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절대성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삶의 형식인 부활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전혀 다른 생명의 형식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애벌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는 아무리 먹을거리가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애벌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기어 다니면서 뽕나무 잎을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기어 다니는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사도신경 해설>에서 말하듯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 현실성은 “모든 지상적 생명과 완전히 다른 종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135쪽). 이렇듯 전혀 다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성욕을 느끼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런 지상의 생명형식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만족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부활은 애벌레의 세계로부터 나비의 세계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만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서 이 지상적 삶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형식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 동안 인간이 중요하다고 여긴 모든 삶의 형식들이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세계라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세계 앞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이 상대화되며, 교회도 역시 상대화됩니다. 이런 인간의 문화로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0. 하나님과의 평화

(5:1-11)

아브라함이 예로 등장하는 앞장에는 인간의 의로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 매우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명제는 특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까지 충분히 아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시다만 거의 혁명적인 인식론적 변화가 없으면 이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만, 인식의 과정이 대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앞 단계를 거쳐야만 그 사람의 인식 세계 안에서 체화되지 그런 전 단계가 없으면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수행으로서의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 공부가 반드시 신학을 전공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알기 때문인지 바울은 이제 5장부터 칭의론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칭의론의 개념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첫 단락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바울의 진술(1절)을 감안한다면 그가 앞서 그렇게 강조했던 칭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평화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간 평화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턱낯한이나 법정 같은 불교의 영성이 나름대로 인간의 심연에 접근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배울 게 많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영성과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착하게 살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최초의 인류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창세기의 보도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피조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야심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이런 야망은 아담과 이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왔으며,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하나님처럼 세계를 지배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망은 늘 야만과 폭력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숲 속에 숨어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는 바울의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자기 절대화로부터 돌아서서 자기의 피조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본책퍼의 명상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지구의 손님이다.”(Ich bin ein Gast auf Erden).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코 우리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이런 평화를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현재의 은총 안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의 피조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은총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합니다”(2절). 다음과 같은 개역성서의 번역으로는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마틴 루터의 번역이 훨씬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칼빈의 용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흡사 임금과 신하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유비들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방식에 대해서 곡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존재로 여기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나누는 인간관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림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계시입니다. 액체인 물이 고체인 나무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점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참여하게 될 영광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적 그림들도 이 영광의 모든 것을 해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소외가 완전히 극복된 상태, 또는 참된 자아가 획득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인식론적 한계나 언어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아도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안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완성된 생명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생명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희망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적 토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희망”이 곧 그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옳습니까? 아니면 공연한 장광설이거나 요설에 불과합니까?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무더기 꼬마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비석 놀이, 고무줄, 줄넘기 등, 재미있는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어떤 덩치 큰 녀석은 친구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또 어떤 녀석은 구슬치기에서 비겁하게 속임수를 쓰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해가 기울자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기 아이들을 불러들입니다. 자기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집 아이들은 놀던 것을 그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갈 집이 없거나 행패만 부리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내세주의이라거나 초월주의라거나 역사 냉소주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명백한 리얼리티를 직면하는 것이며, 이럴 때만 역사에 끌려 다니지 않고 역사에 참여해서 개혁과 변화에 몸담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미래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혁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희망으로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현재 역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고 주장합니다. 흡사 뒷말 이어가기 식으로 전개된 바울의 이 문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고통, 인내, 끈기, 희망. 이러한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희망의 삶으로 승화되는 근거에 대해서만은 한번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고통이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당한 고통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수난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감당해야하는 불안과 허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영광의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곧 기쁨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이들의 놀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암시한 것이지만 즐겁게 쉴 집이 있는 아이들은 구슬이나 딱지를 잃어도,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순수하게 정신화해서 그것의 마성적 힘마저 간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현실을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행복한 조건에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희망은 사랑이다

그런데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기독교인의 희망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희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5,8절).

사실 인류 역사에는 거짓 희망이 판을 쳤습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도 역시 인간을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 인한 해방의 시대가 온다고 역설했지만 그것은 허황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자본주의경제도 역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값을 잡아 보려고 해도 그것은 그 때뿐이지 결국은 돈벌이되는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경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독일도 역시 그렇습니

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요즘 한국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NEIS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학생들의 인적, 학적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교육부 관료들의 주장과 그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한다는 전교조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 종교계의 강력한 호소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서 일백 여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행정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은 간척사업을 하루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어떤 근원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그것의 치료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강요시켜놓고, 이제 와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든지,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득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증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발상이 너무 안이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 변혁의 눈높이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설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또한 현실 개혁과 변혁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될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변혁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칠 때 자기 나름대로 세계의 평화를 열어 가는 행위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국의 평화만을 지상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역사 변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노조와 기업주가, 정부와 공무원이, 진보와 보수 세력이 각각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율법의 완성이라 할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방향이 명백하다면 긴장과 갈등이 결국 우리 개인과 사회의 삶을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화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명시적으로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며(9절),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9절). 게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1절).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나 명쾌한 사실입니다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또는 타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유대교 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질문이 그렇게 근거 없거나 남의 약점을 잡으려는 비열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은 예수가 왔을 때나 오지 않았을 때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있고, 특히 선천적 장애아들을 볼 때 도대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은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런 논의에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 또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유쾌하게 되었다는 인간론적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그런 현상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 쉽게 도루묵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새겨야 합니다. 시인들이 시의 세계에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11. 아담과 그리스도

(5:12-21)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유형론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논리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비슷한 논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논리를 따라잡는 작업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바울이 오늘 말하려는 요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당하게 된 죽음은 실제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처럼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 오늘 본문을 단지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아주 따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전혀 보편적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억지 주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며, 그저 논리를 위한 논리의 공소성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어진 문제는 모든 인간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그 두 관계는 어떻습니까?

죽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 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12절).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주장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화되거나 또는 죽을병에 걸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인 주장은 부분적이거나 또는 매우 추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노화하고 죽을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바울의 증언을 지나치게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잘못도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서 숙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 인간은 결국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류사는 이런 죄론으로부터 벗어난 사회주의자들과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니체는 이미 인간의 죄를 공격하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믿지 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신이 죽어야만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해방된다면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의 훼손은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 책임감과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로 제한시켰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책임감도 없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바울이 오늘 이런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주제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학을 죄론에 근거해서 구성해보자는 시도

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실 교회가 인간의 죄를 공격함으로써 인간성을 훼손시킨 그런 역사적 행태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죄가 아니라 은총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또한 기독교회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죄가 도덕적이거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려는 계산에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인 도덕성과 심리상태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심층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며 통찰이 바로 성서와 기독교의 죄론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도 이런 심층적 인식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당연히 죽는 게 아닐까요? 거꾸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면 인간이 생명과 단절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성서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은 죽는다는 이런 진단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현대인들에게 별로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달여 먹어야 하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기껏해야 기복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설교자의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청중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설교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그 딜레마입니다. 이는 흡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부역일에 정신이 없던 마르다에게 “네 동생이 좋은 것을 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죄한 자의 죽음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 옳다고 한다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비록 모든 인간이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아담과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인 의미가 있듯이 아담의 범죄는 그런 대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도합니다. 생명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부터 조명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생명을 모색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과 끊임없이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옳다고 하더라도 무죄한 자의 고난과 뜻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이 파괴되는 일들 앞에서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만약 죽음이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런 무죄한 어린아이들의 죽음도 역시 그런 죄와 연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쉬운 대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면 그의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거나, 또는 그 사회 구조의 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참으로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성서

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솔직한 자세입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시다만 그런 논리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궤변이었습니다. “자네가 당한 재난은 자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대충 이런 논리였습니다. 욥도 나름대로 자기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긴 논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간의 짧은 생각과 혀로 자기 합리화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인식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기다리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추궁하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욥 38:2). 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지껄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욥 42:3,5).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비롯한 이유 없는 고난을 모두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밀 한 알이 썩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현상은 알지만 그 필연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속한 일들을 억지로 설명하려다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보다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궁극적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숨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뭐꼬?”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지만 기독교는 이미 선택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17절). 이 한 구절에 기독교의 주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모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생명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은총입니다. 물론 본회퍼가 지적했듯이 기독교가 이 은총을 너무 쉽게 자기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값싼 은혜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을 인간 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은총은 기독교의 자기 해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생명의 은총 운운하면 뭔가 아주 이상한, 흡사 별나라에서나 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삶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이 선물이라는 말도 자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창세기의 진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숨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육이든지 영이든지 결국 다른 데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볼까요?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늘 영감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감이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라면 늘 일정 수준이 유지되어

야 정신적으로 느슨해지는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곧 영감의 근원이 자기 외부와 관계된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성령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생명의 힘이 지 우리 인간의 내면적 실존 안에 한정된 어떤 감정적,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값진 것들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생명의 빛이 반사되는 것이지 빛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명의 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가 인간의 빛이 되려고 하고, 어떤 조직이나 이데올로기가 그런 빛으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주변 세계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는 교회도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되거나,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가 중심이 됩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목회자일수록 신자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목회자는 결국 신자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기보다는 자기를 부각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사람은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21절에는 은총이 “군림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마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 에온이 끝나고 새 에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바로 새 에온의 특징이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악한 세력이 통치하지만 미래에는 진리와 생명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곧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면서 죽음을 가져다주었지만,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다.”(21절)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영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 단락에서도 역시 우리의 인식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듣습니다만 실제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 자체가 늘 변화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시간 안에서만 타당한 말입니다.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앞으로 45억년 후에는 사라진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우주 전체의 나이가 대충 120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도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가시적 사물과 자연의 시간적인 연장을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게 시간을 늘려 잡아도 여전히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듯이 어느 때가 되면 불이 이 세상을 태우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며,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시간이 가능한 걸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니체도 영원회귀 사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미로 영원한 무엇이 가능하다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서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행복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생각하는데, 이런 똑같은 조건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멋지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곧 싫증을 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 않으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생명형식의 연장이나 확대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먹고 마시거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명 형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독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미래의 완성된 생명사건이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영생을 인식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진정한 해방이 성취됩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런 영원한 생명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해방의 길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에 처했던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으로 인해 은총으로 주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2.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세례

(6:1-14)

바울은 5장 끝 단락에서 은총이 죄를 능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입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칫 바울의 주장을 오해하게 되면 죄와 은총의 역동적 긴장 관계가 이완되어서 단지 낙관적 은총론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하게”(5:20) 임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6:1).

아주 올바른 지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와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숙명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죄의 낙관주의입니다. 이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념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는 지나치게 죄의 힘에 억압당하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는 쪽입니다. 죄를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손상당하며, 죄를 간과하게 되면 계몽주의에서 나타났듯이 인간과 그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양측이 서로 상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인간학적 토대에 서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이 가야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총의 긴장 관계가, 또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작동하는 긴장 관계가 세례 사건에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와 문답을 합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정도의 교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세례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영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서너 번 정도의 교육으로 끝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준비 없는 세례 교육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세례를 받고 성수주일과 십일조나 잘 드리는 신자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죽음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3절). 여기서의 죽음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져서 그렇지 초기 시대에는 실제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지금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모습 그대로의 인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 교회 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완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대답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례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는 세례를 죽을 때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수한 것을 추려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준비가 많았든지, 불충분했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례 이후에도 죄를 짓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죄에서의 해방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7절). 죽은 사람은 그 이전의 모든 계약과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근거이기도 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타당하다는 점에서 죽음은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며, 따라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말은 곧 죽음은 모든 율법적 규범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하면 자살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확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곧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해명은 보다 심층적인 인간과 세례 이해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과감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식인종들이 인간의 살을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죽은 승려들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 독수리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도 역시 죄가 아닙니다. 법은 그 법이 인식되는 범주에서만 타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바울의 이 말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과 종교적인 율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 땅의 삶에 한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리는 허구이며 순수 관념에 떨어져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절대적인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례 사건을 해명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이 절대세계의 논리를 이것 자체로만 생각하면 자칫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오늘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거나 간과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이 가장 명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제 율법과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도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점을 바울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3,5절). 이 문제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전혀 다른 시공간에 놓여 있는데 말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두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옳다면 세례가 바로 죽음이라는 바울의 진술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명하기 힘들면 영적인 차원이라고 대답합니다만 그 영적이라는 사태가 너무나 다르게, 또는 이질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답은 불충분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변죽만 건드리지 말고 정곡을 찌르는 식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지만 그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이는 흡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이라는 사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일은 단지 예수에게서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니셔티브는 바로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른 실체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예측한 어머니는 딸이 모르게 자기 통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끝내두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금융신용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딸이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매일 불안하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는 새 생명의 사건이다.

사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죽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 즉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는 사실도 역시 분명합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지금의 삶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새 생명, 또는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세계를 깨치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즉 새 생명이 정보의 차원에서는 우리와 연관되지만 실제 삶의 차원에서는 거의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들의 작은 경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단혀 있습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을 확대시키거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나가는 것만이 곧 삶의 목표이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른들의 경우처럼 수평으로 그어진 선 중간에 반원의 곡선이 놓인 그림을 밑짚모자로만 생각하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 구렁이로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과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하며, 아흔 아홉 마리의 양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역시 귀중하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불행을 당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불행과 하나님의 존재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택된 생명의 세계에서

이 새 생명은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세계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선택(先取)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현재 속으로 앞당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까요? 현재는 현재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이지 어떻게 미래가 현재일 수 있나요? 시간을 늘 빛의 속도에 의한 기계적인 진행으로 본다면 현재와 미래가 결합될 수 없습니다만 시간과 역사가 늘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인식론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것의 선택이라는 긴장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지 미래의 희망에만 빠져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긴장관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를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으면서, 동시에 계시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총 아래서

법이 아니라 새 생명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선택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입니다(14절). (율)법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작용해야만 하지만 은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은총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에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주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의 질서로부터 은총의 질서로 바뀐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주론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12-14절에서 몸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악과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휴머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도 아주 뛰어난 삶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역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탈(脫)역사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는 명백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타노이아(회심)가 우선하는 것이지 그 회심 이후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범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다”고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총 아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회에서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을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세례”라고 잡은 이유는 세례가 곧 이 세계와 우주 전체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비록 소박한 종교 의식의 형태를 갖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롬 6:1-11

죄와 은총

아마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억나는군요. 어느 성당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주일에 성당에 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야외에 놀러갔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였을 때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녀는 죽은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해 죽은 이유는 주일에 성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불행과 죄를 연결시키는 생각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당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 그들은 매 주일 미사를 드리기 전에 신부 앞에서 고백성사를 해야만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성사라는 건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영성에 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담으로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탓인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자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라고 토를 겁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과 죄는 무슨 관계일까요? 또한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서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서를 그렇게 많이 읽고 가깝게 지내면서도 죄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별로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암에 걸린 사람이 민간요법만 의지할 뿐 권위 있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음과 같은 5장20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사람과 조금 잘못된 사람이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크게 잘못된 사람이 훨씬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별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범생들보다는 세리나 깡패들처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은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와 은총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구도가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지 죄의 심층과 은총의 심층은 간과되고 맙니다. 흡사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이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성문 한 장 쓰고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처럼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모두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죄와 용서, 죄와 은총이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결국 죄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왜곡됩니다. 하나는 숙명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낙관론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의 숙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을 죄인으로 자책합니다. 자신의 실존을 죄로 본다는 게 매우 기독교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국 죄로부터 해방된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숙명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죄 낙관론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반성문을 자주 쓴 학생처럼 모든 죄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숙명주의에 사로잡힌 사람과 마찬가지로 결국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숙명주의와 낙관론이 우리의 삶에 불안하게 결합하게 되면 기독교인은 탈(脫)역사적이고, 고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면서 동시에 무(無)율법적인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와 죽음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는 논리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세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리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죄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만 작동되는 매우 한정적인 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법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잡아가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거나, 또는 칭찬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사람들을 악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갈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옳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인의 실존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실존은 모순이면서 긴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독교인의 실존을 죄와 선의 이중인격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받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롬 7:22-25).

기독교인의 삶은 늘 이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긴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단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이미 자기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흡사 천사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종교적인 마사여구만 사용하고, 행동도 매우 종교적인 척 합니다. 늘 입에 할렐루야와 아멘을 달고 살면서 이 세상의 인간적 삶의 모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조건 세속적인 가치에만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과 투쟁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의 삶을 ‘피안주의’라고 한다면, 후자에 속한 사람의 삶은 ‘차안주의’입니다. 이 두 세계가 기독교의 실존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죽음과 삶

이 긴장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음과 삶의 변증법입니다. 기독교인은 한편으로는 계속 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삽니다. 죽음과 삶이 우리에게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죽어야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생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현실로만 본다면 우리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다는 말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죽지 않은 사람이지만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결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에게서 그것은 이미 현실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서서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10,11절).

과연 죽음과 삶이 우리에게서 일치되는 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충고하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말을 단지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고상한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삶의 긴장과 역동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요구합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태도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우선 매일 죽음의 반복입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죽는 연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에 직면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매일 죽는다.”(고전 15:31)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죽음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지 인간 삶의 허무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는 자기 성취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세계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매일 경험해야 할 죽음은 자신의 성취욕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잘 생각해봅시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는 자기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업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

의 열정이 모두 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열정이 죄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한다면 그것이 곧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자기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바로 세례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날만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사실과 그와 더불어 다시 산다는 사실을 진지한 자세로 확인하는 것이 곧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죄와 십자가, 생명과 부활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늘 새롭게 확인하는 사람의 삶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죽음과 하나님의 통치인 삶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이며, 살아있지만 동시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죽음과 삶을 하나로 여기는 삶의 신비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13. 죽음과 영생

(6:15-23)

우리가 성서를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서 어떤 정보를 캐낸다기보다는 신학(양)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성서 본문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계시이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서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자기계시 방식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서 기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자신을 열어주시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서읽기와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사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성서의 정보를 이미 완료된 그 무엇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실증주의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나 형식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게 될 바울의 진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천 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의 한계, 그런 삶의 자리, 그리고 바울이라는 한 개체가 안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사유의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이 로마서 내용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가 혼신을 기울여 선포하려 했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

앞 단락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세례가 갖는 심층적 의미를 분명하게 해명했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이 기독교인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택한 단락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죄와 의(義)의 구도에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종’(들로스)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특징이 그런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로마 귀족과 로마 시민과 그들에게 속한 노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市)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잡아온 외국인 노예들에 의해서 모든 노동력이 제공될 정도였기 때문에 노예와 그들의 운명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죽는다.”(16절)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중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바울의 표현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철저하게 의존해 있는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난 다음에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된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는 아주 오랫동안 그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데 익숙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 문제를 심층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아마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보다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비해서 무의식이, 또는 잠재의식이 훨씬 깊고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의식이 어떤 구조로 확정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결국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 불안한 심리가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겠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약물치료도 하고,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정신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문제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라든지, 또는 인간의 도착된 심리를 기술적으로 교정하거나 치료해나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인간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보는 반면에 기독교는 부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생명이 유지되고, 끊어졌을 때는 상실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간관계의 개선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사용한 종이라는 개념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해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선택하고 있는 한쪽의 삶을 죄의 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곧 죄가 지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죄로 기울어진 무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힘이 아니라 죽음의 힘이 그 사람에게서 주인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삶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지만”(19절). 로마 사람들의 생활태도가 어떠했기에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지 그것에 대한 문헌을 보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로마만큼 돋보이는 문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문명이 로마로 집대성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서양문명은 다시 그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 철학, 학문, 예술 등, 유럽 전체 문명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런 저력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것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대개는 자기 나라의 민중들을 수탈하거나 다른 나라를 강탈함으로써 생긴 힘이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탈과 문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수준으로 풍요롭게 살수는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풍요롭다는 것은 그 어떤 나라가 궁핍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로마의 힘이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내면으로는 지배와 소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간에게 최소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훨씬 감각적인 쾌락에 대

한 추구입니다. 로마 문명에 정신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작은 부분으로 내몰리거나 숨겨지는 반면에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욕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사람들은 능력껏 출세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얻게 되는 재물과 권력을 통해서 끝없이 쾌락을 좇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태를 가리켜 “여러분이 전에는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정신과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부분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거나 신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먹고 마셔야 하며, 스포츠를 즐겨야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우리의 삶을 집중시킨다면 결국 인간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교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자신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생명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 문명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사실, 즉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기울어지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 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의 끝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겼다.”는 말을 단지 도덕적 불감증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도덕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삶의 자리를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인 행동이 바람직 한 것이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말은 로마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 줍니다.” 이런 진술은 자칫 추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부도덕하게 살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산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거나 더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평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런 심리상태가 자기의 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습시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부끄러운 일들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말씀하나요? 이런 말씀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에도 역시 인간학을 뛰어넘는 바울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사람은 그런 죽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힘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욕구에만 충실함으로써 결국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유지되는 삶으로 모든 게 끝장납니다. 그 사람의 근본 마음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식에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가는 분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곧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없는 것에까지 초월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냉소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행위라고 본다면 앞으로 4,50억 년으로 수명이 다하는 이 지구에 있는 것에만 궁극적인 생명을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주 먼지가 어떤 물리 화학 작용을 일으켜 별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지금 태양을 뿌리로 두고 있는 지구 안에서 이런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의 생명만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외계인 운운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지구를,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지평에까지 눈을 조금만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만을 절대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이 땅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에 목을 매달 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로마 사람들의 불법도 역시 자기들의 법, 정치, 군사력, 예술, 도덕성에 절대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인간성이 부패했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성취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으로 모든 게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위에서 말한 로마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것에 삶의 목표를 둔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19절).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22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이 말은 일단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편에서 쉽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주제이기도 한 이 의(義)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의를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의는 대개가 자기의 주관에 의한 가치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폭력은 정의입니까, 불의입니까? 평화만이 옳은지, 폭력은 무조건 악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폭력이 정당하게 사용되면 그것도 역시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의가 늘 이렇게 상대적이니까 언급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는 인간론이 아니라 신론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제의 결론을 영생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연장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상하게 된 인간의 욕망도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신앙적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궁극적 생명을 준비시키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

스도에게서 이런 일련의 사건과 희망이 선회되었으며,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삽니다.

14. 법을 넘어서

(7:1-25)

기독교인의 실존

로마서 전체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예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남편에게 법적으로 묶여있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묶인다는니, 벗어난다는니 하는 바울의 표현이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못마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관심은 인간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이나 분석이 아니라 종교적 이해와 해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법을 아는 사람들(1절)에게 그 법의 본질을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부 사이의 법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바는 기독교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6장에서 언급한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인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더 이상 죄를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율법이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기독교인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곧 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 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표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마시며 아기를 낳는 등의 이런 일련의 삶을 바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욕적인 삶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아내가 남편과의 법적인 의무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 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 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욕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헬라어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탐욕 정도로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 따르면 율법에 묶인 삶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짐착하게 만듭니다. 원래 법은 인간 개인과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 삶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과 로마 기독교인들은 아마 법(노모스)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로마의 법은 인류의 정신문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그들에게 자랑거리였던 그 법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근원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의 정당성을 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7장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는, 또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이랄 수도 있는 한 구절을 잠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아내처럼 자신의 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루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힘인 성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삶입니다.

율법의 기능

바울은 앞서 설명한대로 5절에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욕정에 사로잡히고,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다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곧 죄입니까?”(7절). 당연히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죄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7b절).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은 학칙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법이 있기 때문에 탈세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런 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법보다 훨씬 근본적이긴 합니다만 그 양심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족에게는 일부다처가 정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딸이나 아내를 손님과 동침하게 하는 일도 정당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웁니다. 이런 점에서 양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이 훨씬 중심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기 관심으로서의 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한다면 도대체 율법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인 8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는 이 계명을 기회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율법과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율법은 좀 큰 틀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인 반면에, 계명은 약간 작은 틀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토라)이지만 십계명은 계명입니다.

바울은 계명(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고 증언합니다. 원래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결국 죄로 빠지게 했다는 이 바울의 주장이 논리적입니까? 여기서 루터는 탐심을 루스트(Lust)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스트는 호기심, 흥미, 욕망 등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한 관심, 흥미, 호기심을 발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성서는 일반 윤리에서도 이미 파렴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성서의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실정법이나 윤리와 풍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자기 흥미, 자기 집중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율법의 본질과 인간의 자기 집중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인식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세련된 인간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최소한의 길이었던 율법이 어느 사이에 인간이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흡사 모범생이 자기 자신에게

흡족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대개의 교회 생활은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 일들이 신앙적으로 칭찬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나 헌금, 봉사 등, 모든 게 그렇게 굴러갑니다. 결국 계명을 지킴으로써 종교적인 모범생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에 대한 집중이며 집착이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계명 중심의 교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이라도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죄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엄격하고 날카롭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모범적인 삶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그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국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더 나아가서 앞세우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능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지만, 만약 시험과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대신 은총과 사랑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바울의 인간론은 단지 책상머리에서 나온 관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철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율법에 엄격했던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상대화한 예수와 그 일당을 제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바울은 그 율법의 내면적인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과 복음이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 사이의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극단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극단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죄의 작용

바울은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어야 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10,12절). 그는 14절에서도 역시 율법을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고 보았습니다(11절). 계명은 좋은 것이지만 죄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죄의 실체를 인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곧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도 그런데 빠지는 것이니까 결국 속임수입니다. 죄가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그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결국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이 곧 죽음 아닌가요?

인격체로서의 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다는 이 딜레마를 바울은 죄론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그 유명한 ‘나’ 문장을 통해서 그 죄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죄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그 죄가 작동됨으로써 영적인 율법마저도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우선 바울은 이런 죄의 작동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렸다고 표현합니다(14). 팔렸다는 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15). 또한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19). 여기서 ‘나’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기보다는 보편적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기울어져 있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원하는 바의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 결국 자기의 내부에 자기를 움직이려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속이고, 결국 죽게 하는 죄입니다.

바울의 이런 인간론은 오늘의 심층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 비추어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리치료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감정 같은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힘에 종속됩니다. 오늘의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은 개인들을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 사유방식에 묶어놓습니다. 개인소득이 1% 줄었다는 통계만 나와도 세상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민심이 사나워집니다. 이렇듯 개인이든, 사회이든 그 대상을 노예로 삼는 힘을 성서는 죄라고 부르고, 때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

이런 죄, 또는 귀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탄식조로 말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24). 이 문장에 한정해서만 본다면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는 현실을 보면 그런 절망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케제만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경건한 인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도착되고, 상실된 피조물의 본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팎, 양측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바울의 증언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죄의 숙명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양심을 되찾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교회의 입장을 가리켜 일종의 노예근성으로 비판합니다. 양쪽 모두 바울과 기독교의 인간론과 죄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덕성 회복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며, 인간을 죄의 노예로 재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현실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훨씬 풍요로운 절대적 생명의 세계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분석한 인간학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경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교양이나 학문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와 예술이 인간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에만 집

중하는 한,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성취에만 집착하는 한 아무런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접어두고 우리 종교 문제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상처를 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이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 안에 한정되어 있는 한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허무는 곧 죽음입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법을 넘어서”였습니다.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법의 본질은 원래 선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작용과 현상은 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탐욕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곧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치부심 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이 탐심이라는 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5. 생명과 평화

(8:1-17)

죽음의 법과 성령의 법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 받는 일이 없습니다.”(1절). 바로 앞장에서 “나는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던 바울이 이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령의 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의 삶은 이런 차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2절) 법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단죄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으로, 또는 이 개념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바울이 이런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실질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무슨 이유와 근거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줍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와 죽음의 법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노력과 업적에 철저하게 묶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에로스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현해보려는 모든 열망과 욕망이라 할 에로스가 절대화되면 거기서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인류 평등과 해방이라는 거대한 환상으로 불세비키 혁명을 일으킨 사회주의가 겨우 70년을 채우고 사망선고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지성인과 노동자들이 피를 뿌려가며 세운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사회주의라는 일종의 정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정체가 담아내야 할 훨씬 심원한 생명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상이나 조직은 관료화(율법화)하며, 따라서 생명을 담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경직성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과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무 의욕도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은 자기의 계획과 실천을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에 생명이 담기게 됩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자유롭기도 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단아두지 않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게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세계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영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5,6절). 앞 단락에서 설명한 죽음의 법이 육체적인 것이며, 성령의 법이 영적인 것입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을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막 8:35,36)는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이런 맥락과 닿아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인간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학교 총장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그 운영에만 마음을 둔다면 결국 그는 교육자가 아니라 사업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가이지만 정치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 목적을 두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는 일반 정치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온다는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결국 자기 자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생각하는 총장이 있다면 입학생이 줄어들거나 대학운영이 어려워질 때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시들어 가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육체적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율법처럼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동네 꼬마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서 부르면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없음’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삶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율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곧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율법은 인간을 살리는 길이었지만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일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왜곡되었습니다. 이렇듯 육체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중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준엄한 기준으로 다가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육체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개교회와 노회, 총회, 에큐메니칼 조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갈등은 바로 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에 비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 안에서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며(4절), 둘째로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5절), 셋째로 생명과 평화를 얻습니다(6절).

1.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겉으로 율법을 따르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요구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게 요구하는 것도 역시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토대로 삼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 인간적인 한계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험에 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영적인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인 영적인 것일까요? 흡사 구름을 타고 다니듯 현실의 삶을 떠나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이 우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현실, 이 역사에 내재해 있으면서 초월해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사랑은 우리의 삶에 내재해 있으면서 또한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끌어가는 힘이라는 점에서 내재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월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연극 예매권을 사듯이 사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써야 할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아직 우리가 여기에 더 적합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여기서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 염려가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숨 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인지, 이런 외형적인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토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오늘도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끌어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것, 생명,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지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생명이 무엇인지 밝혀질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물학이나 철학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생명을 밝혀내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오늘의 생명공학이 생명의 신비를 상당히 밝혀내고 있으며, 현대 철학도 역시 그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학(신앙)은 생명을 추구하는 주변의 학문과, 또는 그런 종교와 끊임없는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과 그 생명의 비밀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밖의 세계와 단절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생명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존재가 스스로 드러낼 때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다는 하이텍거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낼 때 우리는 그 계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선택된 계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이 역사를 해석하면서 종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생명과 평화를 동격으로 놓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 말해서 생명은 형상이고 평화는 질료라는 뜻일까요? 이 문제는 잘 모르니까 접어두기로 하고, 또한 앞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니까 평화와의 연관성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몰라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생명과 평화를 병렬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깊은 뜻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생명의 세계를 맞본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는 것은 생명과 끊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흡사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구조 헬리콥터가 밧줄을 내려주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잡았다면 아직 육지로 옮겨지지는 않았어도 불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헬리콥터가 구조 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생명을 건졌다는 생각으로 평안해지겠지요.

이런 점에서 평화는 생명과 깊숙이 연관됩니다. 만약 생명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평화를 얻겠지만 사회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국제간의 끊임없는 분쟁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자기들 체제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쓸데없는 위기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 보이는 심리적 불안 증세도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보장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평화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마가복음에도 나온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고유한 호칭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평화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 호 파테르”입니다. 우리말의 발음으로도 거의 유사한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친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확신은 곧 성령의 작용입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에 좀 신비주의적인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도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대상과의 조우에는 결국 믿음이라는 비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슈바이처의 사상을 생명 경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생명을 경외할 게 무엇이야고 말입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용하고 누리면 되지 경외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지평에서 이 세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열립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17a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17b절).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은 곧 생명의 리얼리티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서 부활을 상속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잠정적인 생명 현상에 불과한 이 세상에 살지만 결국 우리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작용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안고 삽니다.

총체적 구원의 길

롬 8:1-11

율법의 요구

바울은 롬 7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두 세계가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롬 7:21-23).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며 신비주의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적 삶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진술만 놓고 본다면 그는 평범한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양쪽 바퀴의 크기가 다른 마차처럼 늘 뒤뚱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게 허물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안에 휩싸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나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교양이나 도덕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은 율법 문제와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는 그런 법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율법에 전력투구 했지만 거기에는 서로 다른 정신 세계의 대립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입니다. 이런 한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롬 7:24).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이런 율법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즉 모범생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걸어두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내가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모든 삶의 형식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돈 잘 버는 것도 좋고,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등을 한 학생은 2등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고, 1

등을 한 학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1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을 이겨야 한다는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와 경쟁하는 학생이 실수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체면을 살려서 점잖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 학생이 실수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런 자기의 중심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괴로워할 것이고, 무딘 학생이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심각하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일에 관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상태에서는 세상일이나 교회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교회끼리 경쟁하고, 신자들끼리 경쟁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선에 치우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인데, 이런 몸부림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자기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에는 늘 악한 의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자기 삶을 파괴하거나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성취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했던 바울마저 두 손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실존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도 눈치 채지 못하고, 저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그런 영적인 고민을 모른 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롬 8:3,4).

바울의 논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또는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할 율법이 인간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율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전혀 새로운 구원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교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소리로 들리든지, 아니면

너무 낮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구원은 인간이 성취해야 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 해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실제로 모범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남과 경쟁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본이 될 정도로 괜찮은, 아니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바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데에 고민이 따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이해타산에 빠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지 모른다고 판단되면 그런 일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4절).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군인들이 제대하면 군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나, 옛날에 노예에서 해방되면 더 이상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헌금으로부터 전도와 여러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율법 이후의 세계에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이유는 율법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성취감도 발생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은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노예근성이 남아있듯이 율법의 요구가 해체되었지만 우리는 그 근성 자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요구는 영원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곧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영적인 삶으로 옮기는 데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6,7절). 바울은 8,9절에서도 계속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런 설명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술, 담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건전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성서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삶은 그가 앞서서 설명했던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태도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것이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8절)는 바울의 진술에서 “육체를 따라”는 곧 “율법을 따라”와 똑같습니다.

이 구절을 자칫 육체적 본능을 따라 부도덕하게 사는 것에 관한 충고로 해석하게 되면 영육이원론에 빠져듭니다. 육체는 천하지만 영은 귀하고, 우리의 몸은 세속적이지만 영은 거룩하다고 보는 생각은 결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신비한 방식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이 거룩하다면 육도 거룩하며, 육이 타락했다면 영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b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준다고 진술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 전체를 다시 살리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는 결코 인간의 육체와 영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인격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달성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그럴듯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몸과 영혼이 포함된 총체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16. 영광의 의미

(8:18-30)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의미는 각각의 구절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본문을 몇 단락으로 나누기보다는 핵심적인 구절을 차례대로 묵상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으로 기독교인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는 유비될 만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영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씩 풀어가게 되면 그 답이 자연스레 주어질 것으로 봅니다.

영광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독사’는 독일어로 ‘Herrlichkeit’라고 합니다. 독일어를 직역하면 ‘주(主)되심’입니다. 따라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초보적인 뜻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주님이 된다는 뜻이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주님과 같은 수준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19절)는 진술은 곧 영광의 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계시) 될 때 우리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만 가능할 뿐이지 현재는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삶이 고통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고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랑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 심지어는 남에게 칭찬 받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그것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난한 집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거나 장군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따위의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일단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태를 뛰어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21절은 이렇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은 우선 피조물이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멸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잠시 이슬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젊음도 순간이고 재물과 권세도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도 예술도 이데올로기도 순간입니다. 어쩌면 45억 년 쯤의 나이를 먹은 태양도 앞으로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라진다는 점에서 역시 순간적인 사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속에서 사멸 당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곧 멸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들이 이런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은 곧 자유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죽음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런 죽음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않고, 다만 자유는 곧 영광과 동일한 지평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획득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 있을 동안에도 역시 자유의 심리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에릭 프롬이 오래 전에 말했듯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만을 생각하고 추구하지 ‘무엇을 향한 자유’(freedom to)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에게 임하는 영광이 종말에 주어지듯이 완전한 자유도 역시 종말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노파심으로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비록 궁극적 자유가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내려는 자유형식이 상징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아직 중간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유 투쟁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존적 자유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자유는 종말 이전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획득하고 진작시켜야 할 삶의 리얼리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육신이듯이 영원과 초월은 현재와 내재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22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이해하려면 아직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피조물의 현실을 뼈저리게 짐감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듯이 사람들의 삶에는 마디마디에 신음과 진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외면상 즐겁게 사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은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노래방에 가거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잡거나, 심지어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잠시 흥분하고 즐거운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무한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이 상실되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도 우리의 일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음이며 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

24,25절: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바울의 증언은 옳습니다.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인간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멸망당할 것에 대한 희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의 정치나 유대의 종교, 또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예술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인간적 가치들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기에는 그것들의 토대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이라고 증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희망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바울의 이런 증언을 듣다보면 그는 열광주의자, 신비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바울은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냉소주의자도 아니고, 더더욱 영육이원론자도 아닙니다. 그는 사물과 사람과 세계를 좀 더 심원한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뿐이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그가 무시하고 있는 ‘보이는 것’은 인간의 자기 욕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듯이 이런 욕망에 근거한 모든 삶의 설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참된 생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멸망당하게 될, 사멸하게 될 모든 것들의 훨씬 궁극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멸망하게 될 이 땅의 삶에 생명이 공급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진술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탄식

2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신비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광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쉼이 있어야 할 삶의 무게를 간단히 해소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신음과 진통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곧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모순, 곤혹, 딜레마가 우리의 말문을 막습니다. 예컨대 무죄한 자의 고난, 우리의 격렬한 충동, 사멸에 대한 절망감 등등.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너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야기되는 “말 많음”은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 해주신다는 바울의 증언은 약간

신비주의적인 구석이 있긴 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신자들을 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보 기도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이런 가톨릭의 신앙이 오늘 본문이 진술하고 있는 성령의 중보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어떤 사태가 신비한 방식으로 풀려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성령의 개입이 우리의 언어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라는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이 바울의 증언은 최소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의 좋고 나쁨은 그것 하나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업이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비가 늘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연히 돌아다니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새옹지마라는 고사가 딱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둘째,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듯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결국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삶을 전제로 바라본다는 것에 모아집니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일회 일비하지 않고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전체로서의 삶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인식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확신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편의주의입니다. 사실 바울의 증언과 그것의 왜곡인 편의주의를 구분하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신앙의 초월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인간과 역사의 현실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편의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초월함으로써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탈아(脫我)로서 세계에 들어간다면, 후자는 자기집중을 위해 탈(脫)세계화 하는 것입니다.

예정

3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 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도록 미리 정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아들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나 만아들이니 하는 이 표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은 19절에 기록된 하느님의 자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29절은 19절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0절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광이 진작부터 예정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2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예정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바울의 주장은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미리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정론에,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한 예정론에 시시비비를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선입견 없이 잠시 반성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바울의 예정론은 바로 성령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문이 막혔을 때 대신 그 길을 터 주시는 영의 활동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광은 분명히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시간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의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활동에 온전히 마음을 여는 사람은 영광스런 삶이 약속되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27절)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희망의 눈

롬 8:18-25

피조물의 세계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세계를 조금씩 깊이 있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절대적이거나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구별된 한 인격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세계가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작고 익숙한 세계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마마보이가 되겠지요.

저는 어떤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는 마마보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든 명제에만 매달림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심층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생활에서 무조건 값싼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열광적 신앙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거나, 산을 옮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머니 품을 향한 마마보이의 열정에 아무런 삶의 내용이, 더 나가서 아무런 사랑의 내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짐짓 열광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지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어떤 신앙적 명제를 무조건 믿어야 할 것처럼 광신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세계, 즉 우주론적 차원으로 밀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8절).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17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왕처럼 대접받는 세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나 왕처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영광은 아닙니다.

7월 하순 경에 저는 집사람과 함께 모처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서울구경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반값으로 하룻밤 자고, 아침에 택시를 타고 한강 유람선 선착장까지 갔습니다. 그 도중에 운전사가 우리를 완전히 촌사람으로 알았는지 그 부근의 지리를 설명하더군요. 그 중의 하나가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넓은 평수는 2,3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왕궁 같다고 합니다. 대구에도 좋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늘어나

겠지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렇게 쾌적한 곳에서, 흡사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욕망은 거주만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황 아무개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의 생명윤리적 차원은 접어두고, 인간은 끊임없이 완벽한 건강과 장수를 꿈꾸다는 점에서 이 유전공학은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 같습니다. 불치병 치료라는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미용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80살이 되어도 20살 젊은이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런 젊은이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독사’(영광)일까요? 현재 인간이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영광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젊음과 수명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곧 인류 구원이라고 믿는 과학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이런 것과 다른 생명을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에게 귀를 기울여봅시다.

오늘과 같은 문명의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바울은 이 세계, 곧 이 피조물의 운명을 정확하게 꿰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곧 앞서 17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계, 이 역사,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숙명으로 주어진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냐?’하고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바울은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뿐이지 낙관주의냐, 비관주의냐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설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말입니다. 십자가는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역사의 질곡입니다. 이 세계는 아무리 풍요롭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역시 십자가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유전공학으로 건강과 장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이런 투쟁의 결과는 반드시 십자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좀 더 근원적인 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20절) 진술합니다. 표준새번역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번역했고, 이 허무를 마틴 루터는 ‘Vergänglichkeit’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지나가는 이 세계와 역사가 곧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산해내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숙명 안에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는 때가 온다고 설명합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21절). 바울은 결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 사멸, 무상이라는 숙명 안에 놓여 있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들도 여기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지켜온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미국의 관문에 자유

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조각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미국과 크게 한판 붙은 ‘알 카에다’가 자유를 신장시켰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국제간의 분쟁에서 양비론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가치인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유를 ‘영광’과 연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유’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자유가 지금과는 다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세계에서나 가능할까요? 가장 초보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확보한 자유는 늘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당하는 자유의 영역이 파생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물 밖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요?

희망과 기다림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며, 23절에서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고, 25절(b)에서 “참고 기다릴 따름이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다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물속만이 아니라 물 밖의 세계까지 포함한 참된 세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을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거나, 아니면 우주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새겨들을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기다림은 단지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야훼님 믿고 또 믿어,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웁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야훼를 기다리웁니다.”(시 130:5-7). 이 새벽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에게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이며, 처녀들에게도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직’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어떻게 현재와 미래가 다르면서도 일치한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24,25절). 여기서 현재와 미래를 엮어주는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자기 확신일까요? 정치적으로 유토피아를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건 희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몸을 낮추고, 정신을 높이는 정신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미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노인의 때는 아직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직 않은 그런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 생명이 곧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런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겨운데 무슨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가?” 하는 반응이며, 다른 하나는 “그렇다,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관심을 끄고 천당만 바라보자.” 하는 반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절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곧 기독교 신앙, 즉 영성입니다.

이런 희망의 끈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허무의 이 세상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실 안에서 살지만 이미 미래의 영광을 희망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시각이 있을까요?

금년은 해방과 분단 60주년입니다. 이런 현실만 놓고 본다면 비관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앞날에 진정한 해방이, 남북통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희망의 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련의 순간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한 민족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 우리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꿰뚫어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런 희망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17. 절대 능력

(8:31-39)

케제만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이 구절이 로마서 5-8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의 총결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죽음,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문제가 이제 여기서 수사학적 방식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승리주의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바울의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크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곳곳마다 회당이 있고, 종교업무에만 자기 삶을 바친 전문가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 민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며 살아온 그들 앞에서 이제 막 모임을 시작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그들에게 가소로운 행태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자칫 하면 이런 질문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편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는 큰 상처를 당했습니다. 이미 1054년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분열이 그 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우기면서 상대방을 파문했습니다. 1517년에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세력다툼이 재연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역사의 흐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승리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라고 표현하듯이 기독교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흡사 레슬링 선수인 형을 둔 골목대장처럼 그 형을 믿고 으스댄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교회가 믿음, 또는 선교라는 명분으로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흡사 체인점처럼 생각하면서 늘려나간다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피라미드 방식의 사업을 벌이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승리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만 아니라 사회, 경제, 또는 국제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컨대 지금 대구 곳곳에 대형매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들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서 작은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였던, 그리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행동 역시 승리주의에 결과입니다. 일종의 패권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진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울과 그 당시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4:22절을 인용한 36절을 보면 그의 형편을 알만 합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 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였던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중반의 기독교는 사실 아무런 조직도,

힘도 없었습니다. 거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교회당을 크게 짓거나 교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일종의 영적인,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선언

33,34a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죄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소, 또는 ‘단죄’ 같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법 사실을 적용시키는 것이라며, 단죄는 재판관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고소와 단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났다는 게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옳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만 말하자면 이단 종파에 속한 이들이 우리보다 고수입니다. 영생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믿으면 말 그대로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믿는 행위에 앞서서 그 대상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했다는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율법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누누이 언급했듯이 율법은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율법 없이 사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사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율법 없이 산다는 것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깨우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평생 동안 신앙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사람은 그것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활동에 신앙의 모든 것을 걸어둔 사람은 그런 활동 없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갇혔다. 이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움직이는 데 많은 힘이 들었으며, 어두움 때문에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차츰 동굴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동굴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늘 족쇄를 차고 있었으며, 손으로 더듬어 물건을 찾았다. 그들은 그렇게 동굴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에 길들여졌다. 그런 세월이 흐를수록 동굴 밖의 세계는 그들에게 잊히다가 결국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족쇄를 풀게 된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동굴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사물이 내뿜은 영롱한 색깔, 꽃향기, 호수, 나비, 민들레를 보았다. 이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어서 빨리 동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동굴 밖은 정말 멋진 세계라고 외쳤다. 그러나 동굴 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살아온

동굴만을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동굴 세계의 원로들은 동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단죄하고 옥에 가뒀다. 옥에 갇혀서도 동굴과 해방을 계속 외쳐대는 이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동굴세계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끝에 그를 화형 시켰다. 그 후로 동굴의 세계는 다시 옛날처럼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이왕주, <철학풀이 철학살이>에서 참조).

그리스도의 단죄?

다음은 34b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단죄 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2천 년 전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에 가담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모든 인류가 곧 가해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에게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면서, 인간 운명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종교적 패권과 정치적 패권의 야합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굴러가고, 교육도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경쟁력 확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이런 사태가 곧 하나님의 단죄입니다. 왜곡된 힘의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대신 끝없는 소비와 경쟁과 위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인류는 영원히 단죄 받았겠지만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진술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단죄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3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곱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오늘 우리의 잣대로는 그들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순교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37절). 이런 상태가 바로 순교의 신비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죽음이나 신앙이냐를 선택해야만 할 기로에 섰다면 참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배교한다

고 하고 마음속으로는 믿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순교역사를 보면 실제로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 다. ‘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는 그런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교역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 들을 화형 시키는 로마의 힘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옛 에온이 지나가고 새 에온이 다가온다는 인식도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토대가 된다는 사실만은 새겨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악한 세력

마지막 구절인 38,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 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 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 다.”

바울은 위에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실존적 고난에 해당되는 일곱 항목을 적시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열 항목의 나쁜 세력을 제시합니다. 죽음, 생명, 천사, 권세의 천신, 현 재의 것, 미래의 것, 능력의 천신, 높은, 깊은, 피조물. 앞의 일곱 항목은 실제 삶에서 감당해 야 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열 항목은 묵시사상적인, 또는 그 당시의 우주론이고 철 학적인 의미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우주관은 하늘과 땅과 지하라는 삼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는 물론이고 하늘에도 악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런 위 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묵시사상에 의하면 아직 옛 에온에 속하는 지금은 하늘과 지 하의 나쁜 세력이 땅의 인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릴 새로운 에온이 오면 모든 악한 세력이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열 가지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높음과 깊음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츠만(Lietzmann)에 의하 면 이 단어는 점성술 용어로서 한 별의 최대의 거리를 타나낸다고 합니다. 별이 인격화한 것입니다. 사실 성서에는 죄, 죽음, 영과 육에서 권세들의 인격화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격적으로 본다는 뜻입니 다. 마찬가지로 별도 높음과 깊음의 능력을 갖고 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 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런 점성술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 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이러한 신화적 요소들, 자연과 우주의 인격화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인 성서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문화, 과학,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런 힘들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성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능가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된 현실과 그 뿌리를 넘어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된 현실과 그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론적 악한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에 직면하면 모든 삶의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무(無)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대인들이 점성술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로 나타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이런 인간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업적에 치우치거나 소종파주의자들처럼 감정적 열광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된 현실과 별들의 힘들이 만들어내는 운명이 있지만 기독교인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현실과 점성술에서 구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리얼리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드러난 그 사랑만이 참입니다.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무슨 증거가 있는가? 물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을 실험실에서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선적으로 성서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결국 종말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삶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 사도 바울의 조국

(9:1-5)

경계인(境界人) 사도 바울

바울은 8장31절-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흡사 헬라 시대의 뛰어난 웅변가처럼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다음,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옵니다. 전체가 16장인 로마서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정확하게 후반이 시작되는 9장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글의 흐름만 본다면 이미 8장으로 로마서를 끝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한 셈입니다. 아마 바울은 본인이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8장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9-16장은 그것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적용의 단초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지난 삶을 감안한다면 그가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이스라엘을 거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들은 없습니다. “나는 내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3). 이렇게 절절한 심정을 담은 문장이 바로 앞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8:39)라고 말한 사람의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과장법으로서 민족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했지만 민족을 향한 정서적 농도라는 점에서 바울과 구별됩니다. 일반 사도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반면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토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해나갔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정은 그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를 박멸하는 데 앞장섰다는 데에 잘 나타납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을 지킨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원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마스쿠스까지 출장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인물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자기 민족을 향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경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닌 한 주변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가장 큰 논란거리로 등장한 사람이 경계인으로 자처하는 송두율 교수입니다. 현재 독일의 뮌스터 대학교에서 사회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송 교수(59세)는 지난 9월22일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동당에 정식으로 입당했으며, 그 동안 혹시나 했던 대로 김철수라는 인물과도 동일 인물이고,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한 단체에서도 약간 당혹해하는 눈치입니다. 한쪽에서는 송 교수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정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전개된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국면과 맞물려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與

野)간 정쟁도 역시 송 교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송 교수와 연관된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일까요? 구속 수사하라는 이들의 말처럼 그는 간첩인가요? 아니면 북한과 연계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간첩으로 활동할 의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나로서는 더 이상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쪽이나 북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민족 전체를 자기 삶의 정체성으로 삼으려 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한계가 송 교수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할 뿐이다. 물론 그는 지난 유신시절을 거치면서 북한으로 경도되긴 했지만,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살아왔겠지만 무조건 그쪽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남한으로부터 배척당한 처지에서 호의적으로 대우해주는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어쨌든지 요즘의 이런 세태가 우리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단면인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말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와 기독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아픔을 겪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중간에 놓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과 연대의 끈을 놓치는 않았습니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바울은 4,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우월성을, 또는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2)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3) 하나님과 맺은 계약, 4) 율법, 5) 예배, 6)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 7) 훌륭한 선조를 두었으며, 8)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셨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韓)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계시의 보편성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로마서 1장19,20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계시의 보편성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셨습니다. 이런 우주론적인 역사의 전모를 우리가 모두 밝혀낼 수는 없지만 소극적으로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그것에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예언자들의 활동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은 이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에서 정점

에 이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5)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도 정작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역사에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지 2천년이 지났습니다만 인류 역사에는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무죄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증거들이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 구원 사건이 은폐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랑의 질서가 인류의 역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역사는 거울로 보듯이 회피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구원론적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 또는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담겨 있는 기다림이며,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 사건에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책임은?

여기서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책임은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한 유럽의 역사는 이런 책임 공방에 근거한 반(反)이스라엘 정서가 지배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가 6백만 명의 유대인을 처형했습니다. 물론 히틀러의 광기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한 유럽인들의 정서가 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거나 자기들만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수전노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사람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요즘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이에 맞선 군사공격을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평화와 어긋나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명백합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그들의 메시아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와 왜 동일한지를 해명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역사인식

롬 9:1-5

이방인의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46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자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갈라디아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갈 2:8).

여기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적 체계와 교회 조직이 상당히 발전한 기독교를 보고 있으니 초기 기독교도 여전히 이러했으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흡사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나온 유아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듯이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상태도 그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기독교 공동체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공동의 기반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유대인들과 맺는 관계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공동체는 자신들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헬라파 공동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팔레스틴 공동체가 기독교의 주류로 남아있게 되었다면 오늘의 기독교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스테반으로 대표되는 소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곱 집사들과 그들의 뒤를 잇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일부러 유대교를 배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유대교와 전혀 다른, 그들로부터 자유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적 특색 안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 발전하게 되는 그 길목에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국 이스라엘

초기 기독교 당시에 바울이 처했던 자리를 실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1910년에 이루어진 한일합방의 주역인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유대인들 중의 일부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원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매국노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입장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서도 일종의 왕따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는 게 기독교 초기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극도의 미움을 받았고, 사도들에게서도 경원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곤란했을지는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2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로 인한 슬픔이며, 그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번민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비장하게 언급합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3절). 바울이 오죽 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아무런 한이 없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롬 8:38,39). 모든 존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할 정도로 그는 조국 이스라엘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두 세계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족도 없고, 민족도 없고, 정치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고 정치적 이념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그가 태어난 나라라는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입니다. 아무리 글로벌 스피릿에 철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이런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맛, 우리의 옷, 우리의 가락과 우리의 사유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유일하고 숙명적인 조건입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생산된 것을 먹는 게 좋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삼천리 반도 안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조건을 통해서만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철학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말을 모른다면 그는 결코 한민족일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을 반대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말을 철저하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는 하이데거의 경구를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통해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이 세상을 참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

바울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코로 숨쉬고, 밥을 먹고 배설하면서 생명을 이어가야 할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 경험, 궁극적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경험도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

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혹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그는 4절에서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2)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3) 하나님과 맺은 계약. 4) 율법, 5) 예배. 6)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특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나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여기서 해명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만 짚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기득권을 소유한 민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긴 하지만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족장들의 하나님 경험, 모세와 엘리야 같은 민족 지도자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제사장과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에서도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도 역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전통을 지키거나 갱신하거나 심화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신학이 있고, 교회 체제가 있으며, 더 핵심적으로는 성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현재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

바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우월성을 이렇게 종결짓습니다.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5절).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이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으며, 어떻게 인간 구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의 족보를 열거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신학적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직 그런 신학적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성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족보를 훨씬 뛰어넘어 예수 사건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으로까지 소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절되고 맙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력화했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대목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슬픔과 번민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9장 30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도 역시 믿음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전통을 놓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업적을 통

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점에서는 바울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10장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이나 50점 받은 사람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서울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는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밤잠 안자고 공부한 학생들은 억울해서 못 견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바울은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11:11 이하). 그러나 결국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11:26) 것입니다. 이런 역사발전을 바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라고 고백합니다(11:33).

오늘 하나님은 한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전개하실까요? 이 민족의 통일을 어떻게 실행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보편적 진리가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19. 선택과 유기의 변증법

(9:6-33)

하나님의 약속

9장1-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그 민족의 우월성을 비장한 어조로 서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왜 실패했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 세워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인가? 바울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창 21장 12절을 인용한 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정의 자녀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뜻입니다.”(8절).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얽힌 고대사회의 가족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적자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는 이런 서자, 또는 적자이라는 가문 개념보다 ‘하나님의 약속’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형식적인(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복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이라야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야곱과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런 사상은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라기서 1장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12,13절).

하나님의 섭리

이런 주장은 옳습니까? 표면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이런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19절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듯이 인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체 모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단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두 가지 대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은宿命주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사상과 섭리사상을 이런宿命주의와 일치시킴으로써 탈(脫)역사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현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

으로 참여했던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1919년 삼일운동이 실패한 이후 점차 일종의 역사 초월주의에 흘러들었으며, 또한 1960년 대 중반 이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극단적인 개인구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상에 근거하면서도 우리의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사상은 도덕주의, 또는 인과응보사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12절). 여기에 상당히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성서는 자주 윤리적 실천을 강조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자들이 도덕과 윤리 면에서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만 기독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윤리적 범주 그 이상의 세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토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적 한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규범으로 작동되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만으로는 존재와 생명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위에서 제시된 대답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모순이 모두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리로 끝나게 된다면 서로 다른 논란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사회학이나 역사학의 관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각주일 뿐이지 결국은 성서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밝혀보려는 사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14-18절에서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싶은 사람을 동정한다”(출 33:19). 바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16절). 이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내세운 것은 너를 시켜서 내 힘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출 9:16). 바울은 이 구절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에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18절).

바울이 여기서 전하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역사의 모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에서 간단하게 해명해버리려는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라는 일종의 신앙적 역사철학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는 곧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 눈에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언젠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바울에 의하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곧 그분의 자비입니다. 15절에 인용된 출애굽기의 말씀이 19-29절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용이장이 비유는 이미 이사야(29:16, 45:9)와 예레미야(18:6)가 언급한 것입니다. 질그릇이 용이장에게 자기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도 읽기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에 이르는 이 웅이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난폭성을, 따라서 그것에 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깨뜨려버려야 할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받아주는 웅이장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웅이장이의 비유에서 우리는 성서의 독특한 역사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만든 분이 인격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단지 자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질그릇은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밥상에 오르든지 뒷간에 쓰이든지 그것은 웅이장이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모든 질그릇이 필요 적절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그런 쓰임새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셋째, 웅이장이는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22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만약 그런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당장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건을 직관할 수 있다면 그 토대가 얼마나 부실한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접어두고, 생태계가 약간만 변하면 인간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삐끗해서 빙하기가 훨씬 빨리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넷째, 나쁘게 쓰이는 질그릇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성서의 역사 이해는 악까지 포함합니다. 악의 장본인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역시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서의 역사관은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남은 자들이 곧 웅이장이인 하나님이 만드신 자비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결국 역사의 흐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은총

이런 점에서 바울의 역사관은 은총론과 동일한 지평에 속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가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울은 9장 초입에서 제기했던 이스라엘 문제를 30-33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은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었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그 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32절).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은총이 아니라 업적에 의존했다는 말입니다. 질그릇 비유와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질그릇은 만들어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만 하면 웅이장이의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술잔 역할만이 아니라 밥그릇에다가 물그릇 역할까지 모두 하겠다고 설친다면, 그리고 그런 자기의 넘치는 역할을 통해서 웅이장이의 마음에 들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릇에 담긴 웅이장이의 자비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20.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10:1-4)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이미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했는데도 이제 10장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걸 보니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이 유달리 강한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느님께 간구합니다.”(1절). 여기에는 두 가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자기의 개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행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에 전심전력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바울 자신에게도 나름대로 게름직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정이 식은 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마음을 받치고 싶다는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한 이후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헤아려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던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게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라는 사실 사이에 긴장이 없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진리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건든 이스라엘은 과거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연민을 꿀 수 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을 향한 심정을 절절히 피력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성과 바른 인식

바울은 2절에서 동족인 이스라엘의 신앙 형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지적은 종교 현상이 그것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진리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봅시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종교적 열성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생명 전체가 달려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상태로는 그 본질이 담길 수 없습니다. 신앙에 관계된 것은 그것에 참여한 이가 최선을 다 할 때만 참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참된 것들의 차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음악가가 자기의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음악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인이 되려는 사람은 사물과 역사와 인간 삶에 침잠 하려는 노력을 어느 한 순간이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어로 형상화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종교적 열성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달성해낼 만한 저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성은 그것 자체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열성 보다 바른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열성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성은 강렬할수록 훨씬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매일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젓먹이 아기를 등에 업은 이들도 있고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아무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1992년에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다미선교회 사건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열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벽 2,3세기부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친다고 합니다. 아마 수능시험이 가까운 탓이기도 하지만 이런 종교적 열성은 이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열성이 개인과 사회를 변혁하는 에너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는 교단이 분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사회정의도 한 단계 올라섰을 겁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이 이런 종교적 열성을 결정해주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인식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식론적인 판단이 결여된 집단은 광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과거 역사에는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집단적 노이로제’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했지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늘 신앙을 이성으로 검열해야만 합니다. 이성이 신앙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신앙이 신학적 검열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신학의 검열을 받지 않는 교회의 신앙적 열성은 그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광신적 상태로 몰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성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義)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열성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자기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눅 18:9-14).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14절).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 의는 결국 자기를 높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희생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성을 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이 두 사실, 즉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듯이 자기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물처럼 존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좋아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면서 그림을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비교되거나 양립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존재일 뿐입니다. 흡사 한 나라에서 왕이 둘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힘이 단 한 가지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인 것으로 작용하면 사랑은 뒤로 밀려나야만 합니다. 권력 쟁취가 절대적인 가치로 작용하면 평화와 정의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업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들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비난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진술합니다(4절). 이는 곧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길이 없었니까 율법에 열성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시대로부터 은총의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인간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밖에 없던 시대로부터 그런 모든 경쟁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오늘 명시적으로 설명하듯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은총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자유 개념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이런 자유 개념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해봅시다.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 생산과 소비 구조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로워질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 신앙도 근본적으로 은총의 세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주로 율법적인 일에 모든 힘을 쏟아내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에도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21. 구원의 보편성

(10:5-21)

구약성서의 해석문제

로마서 10장에는 유달리 구약성서가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구약성서 중에서 율법서와 예언서가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성(聖)문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성서가 공식적으로 정경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기원후 90년에 열렸던 얀니아 회의 때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약성서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왜 구약성서를 읽어야 하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은 유대인들과 신약성서의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성서를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읽어야 한다거나, 또는 구약성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전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가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학자들의 구약해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우리의 구약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전반적인 사태를 이 자리에서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두 가지 관점만 명확히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입니다.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약성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성서를 그 바탕에 놓아야 합니다. 예컨대 현대의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도 역시 뉴턴의 기계적 역학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열매이기 때문에 구약성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즉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부분적으로 긴장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계시와 구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평에 속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구약성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긴장을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해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모든 구절이 바로 역사적 예수를 지칭하는 것처럼 비약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런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기독교가 진리 지향적인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우리에게서의 근본문제는 모든 진리를 너무 성급하게 확인하려는 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놓아두어야만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뿐이지만 그 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고전 13:12)라는 바울의 고백도 이런 차원입니다.

율법의 길과 믿음의 길

바울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연이어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율법의 길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에서 선택을 잘못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길은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은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이 문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명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태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시대구분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미 구약성서에 믿음을 통한 길이 주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 시대가 따로 있고 복음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말씀은 그것이 율법이든 복음이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될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본다면 서로 소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0:12-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믿음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과 복음, 즉 행위와 존재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율법적 행위로 치우치거나, 또는 정반대로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사람들은 어떤 리얼리티를 자신의 감각에서 확인되는 것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리얼리티도 여전히 그런 가시적인 율법에서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자기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위 ‘값싼 은혜’에 심취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금욕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업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나, 아니면 삶의 무게가 담기지 않은 신앙편의주의에 빠져있는 상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다른 방식이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배타적 구원을 넘어서

율법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단지 인간의 노력에 무게를 둔 율법에 치우쳤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도 역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있다고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율법 구원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고 한다면 믿음 구원은 포용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예수를 주(主)로 고백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골 2:32).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 10: 9). 신약성서에서 ‘주’는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를 주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타종교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해야 하며, 그것의 상대

화와 투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가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주라는 사실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한 유대인 남자가 자동적으로 주가 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타종교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컨대 불교의 정토진종에서 아미타불(阿彌陀佛) 신앙은 아미타의 도움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아미타가 바로 주님입니다.

계시의 보편성

바울은 검사가 피고를 다루듯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묻고 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길을 알려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시편 19:4).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은 일종의 밀교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계시의 차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편적 특성은 바울만이 아니라 교부들에게도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 사상을 과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의 하나님을 훨씬 풍부하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주의 이후로 기독교는 이런 보편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매우 협소한 영역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과학과 사회, 역사 전반에 연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인의 심리나 도덕성 안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현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땅과 땅 끝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욕망만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묘(妙)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비판은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나는 온 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21절).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사 65:1,2).

이게 바로 인간 역사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데 절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보다 훨씬 빨리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음으로써 다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역사가 곧 하나님의 활동 영역입니다.

22. 역사의 신비와 찬양

(11:1-35)

남은 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 모순을 바울은 “남은 자” 사상으로 해결합니다. 참고적으로, 바울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없던 사실을 바울이 잔피로 풀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그런 인식론적 심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라 훨씬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예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그의 입장은 왕따입니다. 아마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예언자로서의 영성이 훨씬 심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일상에서는 절망감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는 절망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죽음에 이르는 중간 단계는 절망입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혼자 힘으로 물리쳤던 엘리야였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절대 고독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공연한 걱정을 말고 예언자로서 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바알 신(神)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 칠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런 남은 자 사상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남은 자들이 없다면 구원의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물신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런 데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숨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폐의 방식으로 그들을 분명히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5절)라고 엘리야 사건을 현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선도적으로 끌어가던 유대 기독교들이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인

1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 단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약속이 유효하다는 점을 논증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전체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 앞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12절).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구원의 약속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유대인의 시기심이 발동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까지 구원받는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한다고 주장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각성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접붙임으로 설명합니다. 17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 접붙임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지가 잘려나가야 합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 기독교인은 잘려 나간 가지를 엮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20절). 접붙임 당한 가지도 다시 잘려나갈 수 있으며, 거꾸로 원래 잘려나간 원가지가 접붙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림과 접붙임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과 자비가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악에는 준엄하시고 선에는 자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여기서 악과 선은 인간의 실정법이나 도덕과 윤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를 목표로 하는 삶이나, 아니냐의 차원에서 구분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바울의 역사이해는 구원론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비밀스러운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리셨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적 역사관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변증법적으로 움직이는 역동적 역사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과거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고유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해석할 뿐이지 사회과학 안으로 끌어들이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곧 모든 역사의 목표(텔로스)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구원사적으로 해명하고 바울의 논리는 종교다원이라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타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인식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결국은 그들도 “이방인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오는 것”(31절)처럼 오늘의 타종교에도 그런 날이 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와 종교 사이에 진리

론적인 차원의 대화가 부단히 진행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찬양

아멘으로 끝나는 문장(33-36)은 일종의 노랫말입니다. 1장25절의 찬양은 피조물과 창조주가 혼동되는 현상 앞에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바치는 것이며, 9장5절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민족의 연관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며, 이제 11장 33-36절은 역사의 신비 앞에서 그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찬양입니다.

3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공동번역). 마틴 루터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인식, 이 양자의 풍요로움이 안고 있는 심연이여!” 바울은 25-3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다음에 여기서 그런 신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심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와 인식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깊이가 있다는 말은 곧 높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깊이 ‘있음’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실존철학의 개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직관하게 되면 끊임없이 깊이로 빠져드는 걸 경험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내 앞에 있는 것들은 그 근원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흡사 깊은 물속의 어둠이나 또는 지평선의 소실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만추에 나뒹구는 낙엽 한 장도 그런 근원과 미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심연의 세계에 속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깊이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식합니다. 본문의 주제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담고 있는 깊이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초기 기독교는 이런 심연을 하늘로 표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높이는 오늘 본문의 깊이와 같습니다.

3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근원과 현실과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바울의 찬양은 분명히 헬라의 철학적 사유를 배경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바로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기독교 신앙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철학이나 과학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연에서 경험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는 오직 찬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형상이 아니라 일종의 깊이로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공연한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넘어서는 것은 장광설이며 교언영색(巧言令色)이며,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찬양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23. 몸의 예배

(12:1-8)

몸

로마서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과거)이고 유지시키는 힘(현재)이고 목표(미래)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의 우주론적 깊이를 철학적 표현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단순히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자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곧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세례와 연관됩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몸까지 포함한 기독교인의 삶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영혼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로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헬라의 영지주의와는 달리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몸(소마)을 구성적인 요소로 생각했다는 말은 곧 그들이 성속(聖俗)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놓여 있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 삶의 종교적 영역과 일상이 일치됩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설화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며,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흙은 인간이 자연의 소산물이라는 점을 가리키며, 영은 그것을 초월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간혹 창조과학회에 속한 학자들이 진화론을 무조건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고 그 근본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문자적 의미마저도 놓쳐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서의 증언은 곧 인간의 몸이 자연의 소산이라는 뜻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려는 핵심도 역시 인간은 자연의 진화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었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그 자연적 속성 안에 영의 힘이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숨, 또는 바람을 의미하는 ‘루아흐’가 인간 내부에 투입됨으로써 이제 인간은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재료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초월하는 영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몸)과 초월(영)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굳이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격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바울의 말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몸과 영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 두 요소를 구분할 뿐이지 실제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몸 없이 영혼만 존재할 수 있는지, 또한 인간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갈라지는 것인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실증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말합시다만 죽음이 반드시 그 둘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몸이 썩는다는 사실만 본다면 분명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또한 몸이 썩는다는 게 곧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죽음을 무조건 몸과 영의 분리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습니다.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에서 몸을 분해해보았자 거기에서 영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몸과 영의 결합이 바로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 결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생명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몸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곧 인간이며, 이런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개념이 곧 인격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이 결합되어 있을 때만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인 영이 그 육체에 결합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고유한 인격체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격은 단지 영이나 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춘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몸은 곧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일컫습니다. 단순히 예배시간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곧 영적 예배입니다.

마음

바울은 그런 영적인 예배를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누스의 번역입니다. 누스는 마음, 정신, 이성이라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누스를 가리켜 물질보다 우월하고 물질에 운동, 형태, 생명을 부여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스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성)이 종말론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성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확대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쉴라이에르마허가 말한 절대 의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토대를 둡니다. 일견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상위로 작용할 것 같지만 사실상 초기 기독교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헬라철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누스를 빌려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히려 그릇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중요한 인식론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교부들도 주변의 철학이나 사상들과 끊임없이 진리론 논쟁을 전개해왔는데, 그 논쟁에는 이성의 인식론적 토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원리

바울은 신앙의 차원을 전체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론에서 해석됩니다. 자연의 소산인 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그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은총은 다시 은사론(카리스마)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3절 후). 바로 여기에 카리스마의 본질과 원리가 다 포함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카리스마는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봉사의 수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에 따라 설명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봉사의 기회로 알기보다는 자랑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거꾸로 사람들은 남에게 나설만한 카리스마가 없을 경우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만약 카리스마를 순전히 봉사의 기회로 안다면 그것이 뛰어나건 못나건, 드러나건 앎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사도들의 일과 일반 신자들의 일이, 또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의 일과 단순한 사람들의 일이 구분되었겠지만 그것은 오직 서로에게 봉사하는 카리스마로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카리스마의 원리에는 다양성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6절). 바울은 여기서 카리스마의 높고 낮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다르다는 뜻으로만 말합니다. 다원성 가운데서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나뭇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구에 한 가지의 생명체만 있다면, 비슷한 종류만 있다면 이 생태계는 쉽게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사연들은 대개가 카리스마의 오용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단지 봉사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카리스마의 근본원리로 여길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겠지요.

6-8절 사이에서 바울은 대표적인 카리스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함, 구제, 다스림, 공훈. 여기서 제시된 일곱 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개념만 짚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주술이 아니라 그 시대와 역사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여기에 제시된 모든 항목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는 봉사와 연결됩니다.

카리스마 공동체

롬 12:1-8

몸의 예배

바울은 로마서 1-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오히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이런 사태에 시샘을 느낀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런 구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학적인 색채가 농후한 청의론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바울은 12장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쓰기의 순서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교리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교리를 배운 사람의 삶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도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전체도 예배를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 자신을’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의 몸’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진정한 예배라거나, 새 사람이 된다고나, 완전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모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옳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영혼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삶, 특히 더불어 공동체를 꾸려야 할 구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전 4:20)는 바울의 주장은 옳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말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이런 예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승화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체화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걸 단지 종교적인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셨든지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화할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그 음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겠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에는 예배와 삶의 일치, 몸과 제물의 일치, 진리와 삶의 일치, 말과 행위의 일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몸의 예배나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 이런 성서 용어를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 정의를 실천

한다거나 노숙자를 돕는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곧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물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서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바울이 극복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예배라는 게 이런 율법이나 도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말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과 삶에 긴장이 있습니다.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과 도덕을 폐기하지도 않는 삶의 예술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을 추동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길을 잃기 쉽습니다. 성서에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이런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훨씬 근원적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훨씬 근원적인 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을까요?

카리스마의 토대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사용된 ‘카리스’라는 헬라어와 6절에서 사용된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약간 구별됩니다. 은총이라는 뜻의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라는 뜻의 카리스마는 개인들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카리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카리스마를 받았다는 건 설교의 능력이나 봉사의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8절에서 일곱 가지의 구별된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언, 봉사, 가르침, 격려, 회사, 지도, 자선. 이런 카리스마는 각자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은사의 쓸모에 대해서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선물이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묵혀두는 사람에게서는 먼저 주어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옳은 말입니다. 수영선수는 매일 그 기술을 갈고 닦아야만 일류 선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야만 그는 선생의 역할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리스마를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여긴다는 것은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또는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근본적으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는 그 토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카리스마는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게서 온 것은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카리스마의 원리를 우리 삶과 연결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결코 가치론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이 평등하다거나 인권이 천부적이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정보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서울대학교나 이곳 하양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나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곧이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모든 소질과 모든 재주가 결국 존재론적으로 똑같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문적인 진지성이 무의미하다거나 삶에 대한 성실성이 무의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본질적으로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인간의 태도까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가치 있어 보이든 아니든 전혀 개의치 않고 동일하게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화원에서 비싸게 팔리는 꽃이나 길가에 흔한 민들레나 그것들이 꽃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귀하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그 근본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깨우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무엇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그 무엇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랑한 만한 것이나 내가 남에게 부러워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의 적용

아마 로마 교회에는 이런 카리스마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나중엔 합세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권이냐 교회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3b절).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기업가들이 자기 회사를 과대 광고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교회와 신자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왜 이렇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바울의 설명에 따라서 한 마디 짚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교회와 카리스마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역시 여러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유는 매우 생생합니다. 손가락도 몸에 붙어 있고, 눈동자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체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곧

손, 발, 심장, 귀 등등, 이런 모든 지체를 통 털어서 몸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병들었을 경우에는 몸 전체가 이 병든 현상에 연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손톱과 닿아있는 부분이 굼는 ‘생인손’이 많았습니다. 생인손을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고 덧나게 되면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병들었지만 결국 몸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더 나가서 사회 공동체도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빈익빈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도 우리는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허물어져도 자신의 집에 정수기와 공기정화기만 있으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공동체는 결코 카리스마 공동체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공동체가 아니면 결국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이런 유기적인 단일성을 회복하고 있을까요? 이런 카리스마 공동체 정신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나요?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이런 카리스마 공동체의 의미를 이 세상에 삶과 몸으로 전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런 카리스마 공동체를 지향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 공동체만이 생명 지향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4. 악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

(12:9-21)

악과 사랑

바울은 12장1-8절에서 기독교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카리스마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가 삶에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삶의 태도가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면 그가 고백한 신앙은 무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악이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들, 예컨대 고독, 불안, 또는 질병과 취미생활 같은 것들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적당하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악만큼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성이 그렇게 강조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악이 준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혹은 일시적으로 거기서 벗어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세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매우 세밀한 심리묘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천재로 태어난 이 주인공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을 통해서 감옥 밖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악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없이 흡사 악을 즐기는 듯한 이 주인공의 태도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가상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악한 경향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을 하나님과 비등한 또 하나의 근원이거나 실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결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과 정반대에 놓여 있는 절대선(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 악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악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유와 토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종말이 와야만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인식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문제들을 당분간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신앙입니다. 흡사 자기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아들처럼 우리도 그런 정도의 인식에 머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바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9절). 우리 자신이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악한 세력을 우리 자신의 인격만으로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속한 삶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즉 악은 우리가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대응을 피하고 대신 사랑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악과 직접적으로 싸우려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는 그 싸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소극적이거나 웅졸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군사독재를 대항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대항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이 역사가 개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투쟁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당겨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도 일단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그런 노력에 힘을 보태고 싶으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직접 악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모든 일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내 생각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악이라는 게 여름철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뽑아내도 계속 돌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악과의 투쟁은 훨씬 깊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혁명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들은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세상이 이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비판이 옳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악의 현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파고들기 때문에 투쟁 방식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범벅이 되어서 악과 직접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그런 악의 근원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투쟁합니다. 이런 싸움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아주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부활로 종말론적인 승리를 선취한 그 사랑의 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17절)고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라.”(19절)고 말합니다. 악과의 싸움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과 직접 싸워서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적이 있는지를, 또는 약간이라도 축소시킨 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2천 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악의 현실들이 훨씬 줄어들었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그런 싸움에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 힘들이 존재론적으로 막강하다면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 때까지 악이 지배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한 치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요? 물

론 악한 현실만 보면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승리의 나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지 수사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의 싸움과 승리를 해석할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할 따름입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악과의 투쟁이 바로 하나님의 몫인 것처럼 선교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입니다. 우리는 자주 선교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선교할만한 능력과 자질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라는 미명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7-19세기에 유럽이 무력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넓혀갈 때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뒷받침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선교라고 착각합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입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학문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박테리아 같은 세균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운동을 가열차게 넓혀 갑니다. 교회는 단지 그런 거대한 생명 운동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징표를 부단히 심화시켜나가기만 하면 그 어떤 집단이나 이념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선교 지향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한 사도의 신앙이 여기 기독교 공동체에 전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

결론적으로 바울은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내라.”고 말했습니다. 악에게 굴복한다는 말은 악한 방식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악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미 우리가 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운다고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악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며, 잘난 체하지 않는다.”(16절)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에 차거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원수를 갚아봤자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본회퍼의 예를 들면서 히틀러같이 파괴적이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확실하게 처단하는 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회악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판단해서 잘못된 질서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보면 사회정의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사회참여와 역사변혁은 기독교 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또는 휴머니즘에 근거해서 최선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철저하게 선(善)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악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테러와 반(反)테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정의를 실현시키되 우리의 목소리는 가능한 낮추고, 즉 우리 행위의 잠정성을 전제하고, 대신 생명과 사랑의 참된 능력인 하나님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25. 정치와 신앙

(13:1-7)

세상의 권위

교회가 세속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런 세계와는 담을 쌓고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신학적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역시 세속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입니다. 히틀러의 광기 앞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요? 고백교회에 속했던 칼 바르트는 히틀러의 제삼제국 이데올로기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는 점을 신학적으로 피력하다가 결국 본 대학교 신학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독일에서 쫓겨났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는 훨씬 과격하게 투쟁했습니다.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술 취해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논리로 히틀러 암살 결사단체에 개입했다가 발각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독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군사독재 치하에서도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가 그 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70대 초부터 한국 교회는 반정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함석헌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런 정치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그런 정권을 비호했습니다. 아마 그 중간의 입장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는 했을 것입니다. 군사독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격하게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올 피해를 두려워하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정치와 구분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극단적인 정치투쟁으로, 다른 한쪽은 극단적인 무관심으로 치닫던 와중에서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은 성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여기를 보시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복종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요.” 대충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까지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진술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독재자의 횡포 앞에서도 꺾 소리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요? 혹시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위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의 잠정성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만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 전체와 비교할 때도 의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대목이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대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본문에서는 아주 담백한 서술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흡사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수납창구에서 목욕비를 내야한다는 말처럼 당연한 사실관계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바울이 정부와 기독교인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일단 본문의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케제만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이 단락에서 헬레니즘의 행정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로마 권력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상대해야 할 로마 행정 관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는 “복종하라.”는 표현도 따지고 보면 행정 관료들이 하는 일에 단지 협조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은 정치와 행정권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울은 별로 큰 무게를 두지 않은 채 사무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일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로 어떤 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독재 권력에도 복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강부회입니다.

정치의 속성을 성서가 어떻게 보는지 잠시 구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제국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삼상 8장).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고 궁녀를 만들며, 그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막강한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성서가 정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가 생명의 본질과 깊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오늘의 시대는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겠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정치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일과 고기 잡는 일에 정치가 필요할까요? 물론 좋은 정치가는 농부가 농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농사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질서의 악

사도행전에 보도되어 있는 바울의 선교활동은 유대교에 의해서 방해 받은 반면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비록 근원적으로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무질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정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무질서로 인해서 파생되는 악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악한 권력을 비호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그것대로 대처하고 풀어나가되 생명의 질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서 격한 투쟁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차이를 뛰어넘음으로써 훨씬 풍요로운 생명의 세계를 앞당겨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어느 누가 봐도 악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러나면 당연히 이라크 민중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심을 버리고 이라크 문제를 처리했다면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겠지만 말입니다. 이라크는 후세인이라는 악한 질서가 물러가고 대신 또 하나의 악한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중들에게는 이런 무질서보다는 오히려 독재자의 질서가 생명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세인을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고 나름대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설

교회가 세속 질서에 얼마나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서도 혁명적이고 과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루터는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주를 편들었다고 해서 자주 교회역사가들의 구설수에 오르곤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세속적 권위와 영적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는 세속적인 일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 역사에 드러난 구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그 두 권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생각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은 이 두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하나의 사실로 본 반면에서 루터는 서로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따르게 되면 세속 정치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루터를 다르게 되면 한 발 물러서 있게 됩니다.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완전히 신적 통치의 질서로 만들어보려고 한 반면에서 루터는 농민전쟁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누가 옳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판단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입장의 차이를 약간 더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 분야라고 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칼빈의 주장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일단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직접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역시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비판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감안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이라크 파병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하더라도 교회가 이런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학적인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결단으로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적인 국제질서에 적용시켜서 지금 당장 우리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권위의 본질

바울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세상의 모든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만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일 뿐이라고 한다면, 결국 선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을 설명하는 12장과, 그리고 깨어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설명하는 13장8절 사이에 끼어든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지나가는 차에 한 마디 던진 언급입니다. 세속 권력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세금을 내고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은 사회악을 묵인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이며 개혁입니다.

26. 종말론적 윤리

(13:8-14)

신앙과 윤리

신앙과 윤리의 관계는 당연시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신적인 현실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윤리를 뛰어넘지만 신적인 현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리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2004년3월호의 '신학단상' 쪽지에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의 이중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단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치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과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메타 윤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종말론적 윤리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끝나는 종말에는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윤리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집중하지만 그 종말의 지평에서 오늘의 윤리를 해석하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윤리를 종말의 지평으로 견인해 내다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칫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율법

바울은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10절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아마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위 사랑예찬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고전 13:13). 복음과 율법의 긴장 가운데서 결국 믿음의 우월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 바울이 사랑을 예찬함으로써 낭만주의자처럼 보인다는 것은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의 세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그 낭만이 단순히 감수성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합리적인 낭만주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의 진술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이런 율법(윤리)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무언가를 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준다거나, 또는 특별한 이벤트를 꾸미는 것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 따뜻한 말 한 마디 듣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큰사랑입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민족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제 삼자가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나 달콤한 속삭임을 통해서라 위로를 주고받

는 것도 그런 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똑같겠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인색할 정도로 적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사랑의 토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상대방의 생명을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의 빛

그런데 바울의 표현 중에서 사랑의 빛이라는 용어가 흥미롭습니다. 일견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의무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런 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에 젖어버려 삭막해진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아무리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안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심 없이 봉사하는 이들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듯하게 보이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경구의 리얼리티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인데, 여기서 훨씬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그 빛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있다는 말은 사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 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고전 13:3).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기 재산을 몽땅 털어 넣고, 또는 장기를 기증하는 일 보다 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이 곧 사랑 자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식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랑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후자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 사랑의 리얼리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빛 자체이고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다른 물체에 비출 때 그것은 나의 능력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태양 빛입니다. 우리는 단지 반사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랑에게서 발현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카이로스

바울은 사랑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논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11절). 지금은 곧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며, 동시에 구원이 가까이 다가온 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때’는 신구약성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카이로스’를 가리

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태양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연대기(크로노스)만 의식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의 시간이며, 의미 있는 시간이며, 거룩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 나름의 시간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시간표에 묶여 있습니다. 졸업식, 취업, 적금, 결혼과 얽힌 시간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적인 시간표를 의식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주론적인 차원으로 올려놓는다면 구원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만 할 현안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 삶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겪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늘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인터넷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낯선 장소와 낯선 풍물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똑같은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는 전혀 다른 시간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직 크로노스만 작동될 뿐인 반면에 부모에게는 카이로스입니다.

종말론적 윤리

바울은 영지주의의 흔적으로 보이는 낮과 밤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기독교인의 종말론적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된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술 취함, 음행, 방종, 분쟁, 시기.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기독교인의 윤리를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쾌감은 모두 악한 것이니까 일체 억압하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처럼 모범생 만들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생존하려는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터득된 기질이 본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리비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기질을 강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억압하게 되면 위선으로 빠지고, 그게 심해지면 노이로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종말론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한 마당에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서읽기에서 해석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특히 그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각이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술 취함, 방종, 시기 같은 요소들이 아주 시시하게 여깁니다. 자기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내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존재론이라 할 사랑이 그의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27. 채식주의에 대해

(14:1-12)

로마 교회의 자리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가 처한 “삶의 자리”를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룬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기독교도그마에 대한 보편적인 해명인데 반하여 이제 로마서 끝자락에 해당되는 1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안은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바울의 서신은 일반적으로 수신자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는데, 로마서는 그게 정반대의 수순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설립한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의 큰 그림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룬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로마 공동체는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의 모(母)교회라 할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방인 교회이지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이방인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류이거나 그 영향력이 상당했던 안디옥 교회는 율법 문제가 현안이겠지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의 생활습관이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고급한 문화 시민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모든 고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토tem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고사를 지낸다거나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는 습관과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여전히 그런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한 인격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그 이전에 형성된 세계관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정신적 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채식주의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는 이유는 로마 문명에 대한 적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 따르면 그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헬라 신전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이 똑같이 재현된 것 같습니다. 엄격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순전히 채식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채식주의 전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한 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세계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채식만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다.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식만을, 그리고 양념도 담백한 것을 사용합니다. 불교의 고승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식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수도원에서도 아마 이런 정도의 식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적 영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채식 위주로 운용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인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영적인 감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채식을 고집하는 이들의 또 다른 특성이 ‘날’에 대한 구분이라고 설명합니다(5,6). 이들이 날을 구분한다는 것이 로마의 종교적 습관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한 현상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골라서 먹듯이 어떤 특정한 날을 구별하는 행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로마 교회 내의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먹는 습관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적대적으로(Christ against culture)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전통은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보통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가능한대로 이 세상을 멀리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적 형식의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술, 담배를 적대시한다거나 영화나 스포츠 등, 세속문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차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에는 채식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망각한다고 비난했으며, 거꾸로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을 가리켜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했겠지요.

어떤 공동체든지 일단 조직되고 무슨 사업을 펼치다보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듯이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갈등이 그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나갈 때도 있고, 또는 그런 차이가 극복됨으로써 그 본질이 유지되는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먹는 문제와 날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주장은 기독교론적인 토대에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차이를 첨예화해서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옳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전투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와 다른 대상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게 바로 기독교의 훨씬 적극적인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형식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의 형식이 다른 경우라면 그 차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구원에 치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이

사회와 개인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각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상호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을 국가 이데올로기나 시장 이데올로기와 일치시키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과 결코 타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형식이 늘 명쾌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해서 기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울은 기독교인이 서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기독교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12). 기독교인이 이웃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이런 마지막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인식한다면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득이 판단해야 할 경우라도 그는 최대한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드러난 모든 악에 대해서도 그 판단을 종말로 미루어놓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누가 보아도 분명한 독재자, 가정 파괴범, 사이버 교주들도 역시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을 묻고 비난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역사에서 교황청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출교 하거나 심지어 처형한 이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소종파 지도자, 집시, 과학자, 마녀라고 일컬어지던 민간치료자들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국가의 헌법 기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사상범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장기 투옥시킨 우리의 보안법도 대표적인 것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역사 안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판단이 결국 잠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완료형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미래로 돌려져야 할 그 판단의 잠정성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모든 판단의 미래적 성격은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사물에도 적용됩니다. 사물의 실체에 대한 물리학적 판단까지도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미래로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판단이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판단을 내려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만물과 만사가 잠정적이라는 엄정한 사실만 말할 뿐이며, 그것을 전해들은 인간은 자신의 역사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판단은 한편으로 소극적(negative)이며,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positive)입니다. 이런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계 안에서 다른 이와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후심판과 오늘

롬 14:1-12

삶의 다양성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 전체에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레위기에는 묘사되어 있는 수많은 율법의 시행세칙과 성막 제조방식, 또는 역대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성서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주술적 세계관은 직간접적으로 성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로서는 그렇게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잡식주의자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될까요? 여기서 아무 것이나 먹는다는 말은 육식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로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채식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은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거나 약하다는 말은 신앙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하거나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채소만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떤 규칙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겠지요. 믿음은 자유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한되는 삶이니까 채식주의자의 삶을 가리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이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에세네 학파에 속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당시에 사해 부근에서 일종의 금욕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이런 에세네 학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무언가 세속과는 구별된 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금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인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채식주의를 고집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에 관한 문제(고전 8장)를 참조한다면, 그들이 우상을 거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개가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웃에서 제사 지내고 보내준 떡을 먹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

듯이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약간 다른 시각인 경제학적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이 채식과 육식의 문제는 단지 금욕과 우상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실행되던 성만찬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기 공동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애찬입니다. 고전 11장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일종의 공동식사라 할 애찬이 종종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먹을거리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 애찬은 공동체의 친교를 위한 것인데, 여기서 서로 갈등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배부르게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먹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식사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먹을 걸 많이 가져오지 못한 사람 중에서는 열등감에 싸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말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육식주의자는 부자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바울이 이미 고전 11장에서도 경고했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본문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저로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삶의 다양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육식까지 합니다. 5,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듯이 유대인들도 안식일만이 아니라 여러 절기를 꼼꼼히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양성의 파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 사이의 일치를 파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파괴되니까? 3절에 의하면 서로 업신여기는 것이 파괴의 주범입니다. 10절에 의하면 형제를 심판하고 멸시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거 채식을 하든지 육식을 하든지, 특정한 날을 지키든지 않는지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채식과 육식 문제로 크게 다투지는 않습니다. 물론 술, 담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심각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천 년 전 기독교인들 보다 신앙이 좋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 성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파괴하는 힘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순간적으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배척하는 삶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면서까지 교회당을 차지하려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패가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진리 투쟁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 갈등으로 한국교회 얼굴에 똥칠을 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영락교회 사건도 겉모양만 세련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내용은 여전히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치의 파괴입니다. 요즘은 대구제일

교회가 이런 분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노회에 고발했다고 하는군요.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은 한쪽에서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진행되었다는 걸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투쟁적인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훨씬 더 사소한 것으로 서로를 업신여기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 사회 속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의 마이너리티나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멸시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큰딸 지예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대낮에 친구와 함께 교정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풀밭에서 잡초를 솥아내고 있는 여자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고, 경쟁력 떨어지고,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질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의 통치가 결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심판의 때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1절). 이 말씀을 따르다면 아마 믿음이 약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자유를 상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비록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만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도 역시 육식주의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 기독교인들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야. 서로 비판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야 해.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그림을 생생하게 기억하더라도 실제로는 여전히 서로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고, 서로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만 복잡해질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험악한 시대는 이런 위선이라도 필요한 걸까요?

바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상시시킵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죽음과 부활이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의존해야 할 궁극적인 세계 말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사건, 그런 세계, 그런 생명이 우리의 일상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멸시와 비난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생명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의 인격만으로는 결국 서로를 업신여기는 삶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니까 노력하는 시늉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 사건과 우리의 상대적인 일상과의 일치가 곧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가르침의 초석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

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독교 교리가 아직까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 일상과 하나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서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의 결정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곧 궁극적인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학교에서 등수가 떨어지면 화가 납니다. 이게 다 생명이 완성되지 못한 증거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무엇이 생명의 완성인지도 실증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만 약속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말에 조금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생명이 완성되는 심판의 실체는 무엇 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숨어 있던 것들이, 혹은 비밀이었던 것들이 모두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정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재판은 결코 이런 비밀을 밝히지 못합니다. ‘X파일’로도 모든 실체가 드러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입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을 지금 여기서 자기의 삶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28. 기독교인의 자유와 복종

(14:13-23)

신앙과 현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면서, 그러나 불원간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로마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갈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신앙을 이 세상의 풍습이나 관행으로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본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 현실 안에서조차 여전히 기독교적 특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은 일종의 열광주의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문제에도 그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날에 대한 문제에서도 역시 자유롭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입장은 율법주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양자가 서로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독특하게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초월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쪽은 현실에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로마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기독교 윤리학에서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불순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편협한 까닭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이미 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참되게 희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습관이나 윤리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인의 현실은 이 땅의 질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멀리 해야 할 행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땅의 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결국 그의 신앙은 열광주의적인 관념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내재하는 변증법적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나는 우리 집에서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가족을 넘어서서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 동시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 자체를 위해서 누려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상태가 한 인격체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면 그 정체성 정체가 건강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면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기독교인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이런 구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 종속되지만 신앙적 차원에서는 초월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일단 신앙의 초월적 성격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막 7:15). 바울은 또한 22절에서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질서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주술적인 힘은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컨대 길을 떠날 때도 날을 택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할 때도 사주를 보아야 했는데, 그만큼 자유의 영역이 축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주술적인 힘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왕정과 귀족정치는 일반인들의 운명을 제압했고, 제사장들의 신적인 권력도 역시 일반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했으나 그것이 독단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유대인들의 자유는 상당한 부분에서 훼손당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 사이의 논쟁이 안고 있는 토대가 바로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고 봐도 크게 잘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자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 전승된 율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데만 몰두한 반면에, 예수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규범으로서의 율법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그의 가르침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별로 날카로운 주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자유의 영역이 확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술과 담배를 금한다거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작은 문제만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야 어떤 점에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접어들어도 괜찮지만, 교회 성장주의가 거의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이 교회 현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예컨대 교회부흥에 목을 달듯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결국 신앙의 본질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기독교인의 복종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망쳐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15,16). 바울은 20,21절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방종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 자기를 복종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토대를 허물어뜨릴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공동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자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모든 사물과 질서로부터 자유롭지만 그것이 타인을 억압하는 결과를 빚을 때 적절하게 유보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두 명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둘째, 기독교인은 더할 수 없는 충성스런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앞서 오늘의 교회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축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종해야 할 부분에서는 자유를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분리나 교파 분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생활이 지나치게 열정적인 탓인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때 쉽게 갈라집니다.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교파 분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통계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별 교회의 분리 건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런 개별 교회의 분리와 교파분리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음식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유를 유보해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유와 근거: 하나님 나라

바울이 본문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그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로 인해서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날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인 각자가 자기 형편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일종의 옵션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한,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와 동일시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이외의 요소들은 이것을 위해서, 혹은 이것 때문에 요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니다.”(17-19). 에른스트 케제만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 은혜의 영역입니다. 정의는 단지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평화는 모든 사람을 향한 개방을 뜻하고, 기쁨은 열려진 하늘 밑에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부활 논쟁이 벌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마 22:29,30).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실증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의 형식을 확대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끌어내시는 은총의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현실을 무시하고 열광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먹거리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자로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형제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9. 종말론적 희망

(15:1-13)

분열 현상

창세기 11:1-9에 보도되어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가 갈리게 된 동기를 설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같은 대파국을 피해보려고 바벨탑을 건설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성에 대한 도발이라고 여기고 그 탑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성 모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이 설화에 따르면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분열 현상은 의사소통의 훼손에 의한 결과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분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부정하는 것은 약파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좌파 정권의 공고화를 막기 위해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도 우파에 불과한 노무현 정권을 좌파로 보는 그 시각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데, 그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고 소위 오피니언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시각의 차이는 그들의 지식이나 성품이 아니라 어딘가 인간 본질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 설화가 보여주듯이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사유와 가치관에 혼란이 개입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우리의 숙명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분열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서로 적대감을 품지만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을 약간씩 고려할 수만 있다면(역지사지), 분열로 인해서 파생되는 극한의 파국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보더라도 종교 집단 역시 이런 인간의 한계를 손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런 갈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듯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가 바울의 생각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런 다름이 분열 상태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미미한 요소가 되도록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희망론의 왜곡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희망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4절, 12절에 각각 한번, 그리고 13절에 두 번, 이렇게 네 번 거론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희망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기는 하지만 이미 구약성서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구원론 속에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이런 희망에 의해서 견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을 사고, 결혼하고, 여행을 다니고,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사항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희망이 담고 있는 내용과 더 나아가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희망이거나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킬 염려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희망론도 이런 왜곡의 역사를 거쳐 왔으며, 지금도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희망론은 두 가지 방향에서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희망이 현실 도피적인 구조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구호로 집약될 수 있는 이런 희망론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거나, 심지어는 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병든 생각입니다. 신자들이 이런 희망에 기만당함으로써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면서 결국 자폐증 환자처럼 자신의 밀폐된 세계관 안에 갇힙니다. 물론 기독교의 구원이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는 철저하게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지평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의 생명을 근거로 삼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실존 등등,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은 궁극적 미래에 성취될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왜곡은 기독교 희망이 매우 세속적 표상으로 착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먹을 게 많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동산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큰상을 받을 사람과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을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집도 있고 허름한 집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런 본능이 생존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일치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서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기쁨과 평화

바울은 13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명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기쁨과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막연하게 영혼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 세속적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쁨과 평화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쁨과 평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때라기보다는 메시아 경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론적 희망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11:1,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 이방인들을 다스릴 분이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걸리라.”(롬 15:12). 이 말은 곧 메시아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결정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런 세계를 향한 희망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 욕망과 연관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인식하기가 힘들고, 또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더욱 힘듭니다. 결국 참된 희망은 성령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주술적인 작용이 아니라 진리, 사랑,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는, 아주 인격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잠시 성령이 인격이라는 말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일차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인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는데, 여기에는 가면, 배우, 인격 등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왜 인격을 가면과 같은 단어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니까 접어두기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가짜라거나 허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이성적 인식 작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격 개념에는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자유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성적 인식 안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활동하시는 셈입니다.

일치의 힘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과 바울의 이런 진술을 연결시킨다면, 종말론적 희망이야말로 인간의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받았다(시 68:10, 69:9)고 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데, 모든 분열을 극복하는 단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정치, 종교권력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 사랑과 일치를 훼손하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바는 종말론적 희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의 내용인 기쁨과 평화의 능력으로 일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나가는 일에 최선을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으며,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밀쳐내려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고, 종교 간에도, 또는 한 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희망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런 갈등과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종말론적 희망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기쁨과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접근을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말론적 희망이 그렇게 간단히 우리에게 일치의 힘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분파 작용을 보면 그게 얼마나 고단한 길인지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자기 삶의 토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능력들이 존재론적으로 드러나야만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능력이 이 세상에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 사도의 정체성

(15:14-21)

카리스마의 원리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긴 편지가 끝나 가는 이 대목에서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른 열두 사도들과 달리 오히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억압하다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그 이후 아라비아에서 자신을 성찰하던 시기를 거쳐서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이 사실을 흔쾌히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사도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모든 직제는 외형적인 조건보다 그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의 외형적인 직책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카리스마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외형적인 차원보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15절)라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사(또는 은총)는 바로 사명에 관련된 것이지 어떤 직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는 단지 교회 공동체의 종교적 직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장 노동자로 살든지, 학교 선생으로 살든지 그 직책의 외형적 상태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는 내용이 삶의 근본입니다. 연극배우는 연기에, 학교 선생은 가르치는 일에,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살림살이에 마음을 두고 그 행위가 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는 것이 곧 카리스마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런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직책을 성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결국 삶의 내용이 빈곤해집니다. 이것은 카리스마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사도의 사명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의 직무를 맡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16절). 이 문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의 사명과의 연결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 대충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바울의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런 바울의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몇몇 보도를 보면 베드로 같은 사도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울 같은 사람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없었다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유대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주류로 활동하던 그 당시에 바울의 이런 주장은 별로 탐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창조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독실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해석에 의해서 성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직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이미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은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지평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음을 일종의 종교적 의무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음을 추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복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며, 후자는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과 역사에 대해서는 진지해지고,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안타깝지만 그 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 살리기

이 복음 문제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겨우 교리적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적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주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교리적’이라는 말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현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원에서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고단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대신 예수 천당이라는 구호만 외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 복음이 주술적인 차원으로만 오용됩니다. 복음이 주술적으로 오용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흡사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콘서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겠지요. 복음이 이처럼 철저하게 종교적 이기심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구조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교리에 머물거나 이기적인 도구에 머물지 않고 훨씬 근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종교와 삶의 일치이며, 동시에 종교의 세속화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을 실제로 구성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민하게 영적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간단히 복음을 죽이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간단히 우상 숭배의 길로 쉽게 들어섰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능력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토대가 된 것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의 힘”(19절)이라고 진술합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은 곧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종말론 사건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종말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곧 기적적인 것으로 자신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서 놀라운 일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현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사도가 철저하게 의존해야 할 유일한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종교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나 신유, 그리고 축귀와 같은 것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현상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된다거나, 전도를 잘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부족합니다. 우선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즉 종말에 가서야 완전하게 드러날 하나님이 하나의 종말론적 징표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곧 성령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흡사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마술이 놀랍게 보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금년 안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학력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시대가 왔다고 합시다. 또는 한국의 모든 기독교 교단이 하나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믿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 종말론적 상상력이 우리에게 궁핍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 상상력 없이 이 세상을 바라만 본다면 이 세상살이는 얼마나 지루할까요?

사도직의 원칙

바울은 끝 단락에서 사도직의 본질을 해명합니다. “나는 남이 뉘아놓은 터전에는 집을 짓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 왔습니다.”(20절). 선교 대상을 놓고 다른 사도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이 대목이 바로 소위 자비량(自備糧) 선교의 원칙을 고수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선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나친 경쟁을 한다거나 그 선교를 생활수단으로 삼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목사가 거의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자비량 선교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바울도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게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고전 9:9). 이런 문제는 형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같은 대상을 놓고 과열 경쟁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교인 끌어오기의 경쟁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논리와 현실적으로 교인이 있어야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을 무조건 합리화할 수 없으며,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세속주의와 타협시킬 수는 없습니다.

31. 구제금에 얽힌 사연

(15:22-33)

예루살렘 방문 목적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은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로마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우선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잘 풀려야만 로마를 방문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구속의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일을 해결하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던 바울의 당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다만 로마 황제에게 상고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몸으로 무역선을 타고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이런 일을 어느 정도 예감한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시나브로 끝내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일정 계획을 알리는데, 그 행간에서 우리는 그의 비장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갈 2:10). 갈라디아서에는 이 구제금과 연관된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과 미묘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것의 단초는 물론 바울이 예수 공동체를 박살내는 일에 앞장섰다는 원죄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비록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이 있었지만 대놓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마스쿠스에서 상당한 기간 숨어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 보름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부와 아무런 연관 없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같은 비유대 지역에서 제 나뉠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1에 따르면 14년 뒤에 디도,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지도부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헬라이어 문장이 평소 바울답지 않게 매우 산만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지 사도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일단 양측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었습니다. 양 교단 사이에 일종의 선교 정책 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단은 바울 일행에게 자신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이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일이 없는데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더 핵심적인 갈등은 선교의 대상이 서로 달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이방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단

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사도행전의 과정을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각양각색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 국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바울이 구제금을 가져간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지역의 빈민층 중에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경제활동이 힘들어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정도라면 그 사정이 심각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은 그리스 북쪽에 해당되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역의 신자들이 모금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신자들의 형편이 넉넉했다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축복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27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발생지로서 세계 교회의 정신적 토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인 교회가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은 이렇게 초기 공동체 시절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습니다. 만약 오늘의 교회가 이런 전통을 무시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가르침을 배격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여기서 재차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아주 명확하며,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합니다. 한국교회의 물질 토대가 절대적으로 부실하다면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교회 문제도 어찌 손을 쓰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듯이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 전체의 물질 토대는 생각 밖으로 탄탄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근거해서 분배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지 어려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를 허약하게 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에 찌든 교회가 어떻게 구원론적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근심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에게서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당한다는 헬라어는 죽음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단지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유대 전체 지역에서 총망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나설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들이 있을 정

도라고 한다면(행 21장)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바울이 그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각오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한 또 하나의 다른 근심은 예루살렘 신자들이 구제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31절)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제금은 이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이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으며, 사도행전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했을지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조직을 완벽하게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서로 별개의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했지만 바울의 과격한 태도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바울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런 부분을 생략한 것인지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도행전의 보도에 한정해서 본다면 적진에서 목숨을 담보하고 고군분투하는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비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운명에 개입함으로써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미리 짐작한 바울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구제금을 받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의 인사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이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이런 실제적인 일보다도 복음과 율법,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해명하고 전달하는 데 그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바울이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일종의 신앙적 유언을 담은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으로는 바울은 평화의 하느님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인사를 보내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평화(샬롬)는 곧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역사를 거쳐 온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를 구원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반드시 정치,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정신적 차원에서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때는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의 ‘아멘’으로 로마서는 끝납니다. 16장은 추신과 후대의 첨부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그렇게 활동했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에서 ‘아멘’으로 편지 쓰기를 마쳤습니다.

32.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16:1-27)

서간 형식을 갖춘 고대 문서치고는 상당히 장문이라 할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단락을 맞았습니다. 15장까지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처지에서 숨 가쁜 필치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해명한 후, 이제 16장에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두루두루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전체가 바울의 직접 진술은 아닙니다. 21-23절은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고, 24절은 그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사본에 따라서 누락되기도 했으며, 25-27절은 문체가 기본적으로 바울의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부분과 구별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겐크레아 교회의 페베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인 겐크레아 교회에서 활동한 여성 지도자 페베입니다(1,2절).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페베라는 여성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한 어투로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바울의 진술을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베는 겐크레아 교회의 일군입니다. 일군(디아코노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일컫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여 집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역사는 아주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바울의 서신에 여성을 비하는 듯한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다 보니 벌어지게 된 약간의 시행착오에 대한 충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들보다 훨씬 높지만 교회 정치 부분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남성들의 일을 부수적으로 돕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교회를 주도적으로 견인해 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 남녀 구성 비율도 이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야 겨우 십 여 프로에 접근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질서가 강하니까 교회는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외국의 정치권도 아직 남녀의 완전히 평등한 구조를 완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저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니라 명실상부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조적으로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17대 국회 비례 대표에서 여성이 반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당회의 구성을 남녀 동수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남성 장로들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다른 하나는 신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여성 신자들이 훨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같은 여성이면서 여성 목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여성 비하적인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구조의 개혁만 갖고는 남녀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폐배를 받아들이고 도와주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표현을 미루어보면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인 스스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과연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성속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종교적 이기주의에 근거해서 세상을 낮추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세상의 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자주 듣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기독교인 마음에는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특별히 다르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거나 거룩한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에 관한 영역이나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神)만이 거룩한 존재일까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신비한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 신비,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식론적 범주를 벗어나는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루돌프 오토의 표현을 따른다면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 ‘누멘’이라는 점에서 거의 동일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찬송가와 성서를 손에 들었다는 것보다는 존재의 신비를 삶의 토대에 놓는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 물질로 선교사를 보내고 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세속적 경쟁심으로 타오른다면 결코 거룩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힘,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견인하는 그 힘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존재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힘으로 주변의 막강한 정치와 종교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카와 아퀼라

바울이 두 번째 추천하고 있는 브리스카와 아퀼라는 바울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 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4절). 이들 부부와 바울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보도에 따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축출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아퀼라는 아내 브리스킬라(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와 함께 이탈리아를 떠나 그리스의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중에 바울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탓에 함께

어울려 당분간 고린도에서 지냅니다. 이들 세 사람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울은 이들 부부와 헤어지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브리스카와 아퀼라는 바울과 별도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선교를 독자적으로 전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황제의 칙령이 해소된 뒤 다시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카와 아퀼라의 옛일을 기억하면서 감격에 찬 어조로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들 부부의 집이 곧 교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로 모임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도 역시 가정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점차 조직화하고 확대되면서 공식적인 장소가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는 지하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겠지요.

교회가 오늘처럼 어떤 공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한 형태를 갖는 것과 가정교회 형태를 갖는 것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교회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대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공동체의 질서를 상실할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공공교회는 장엄한 예배의식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성원 사이의 영적 역동성이 훼손될, 즉 형식주의에 빠질 염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를 지적하자면 가정교회에는 교권이 약화되고, 공공교회에는 그것이 강화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개신교 교회의 형태는 이 두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교권과 질서와 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교회이며, 다른 쪽은 영적 역동성과 신앙적 자유가 강조되는 가정교회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을 그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따라서 교회 일치를 훼손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견에 휩쓸리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서의 일'를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천착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데르디오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데르디오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바울의 대필자인 이 사람은 편지 끝 부분에 살짝 자신의 이름을 삽입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은 약간 혼란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되는 3-16절의 서술 방식은 의외입니다. 바울의 편지 그 어디에도 이런 방식의 서술은 없습니다. 특히 이단에 대한 종교심판과 같이 준엄한 필치로 서술된 17-20절은 주로 안부를 묻는 앞뒤의 진술 맥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5-27절이 후대의 삽입이라는 사실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학문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2천 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모두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이 지구에 생존해 있는 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긴 역사의 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모쪼록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자유가 이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되새김의 방식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